PROVIDING HOSPITABIE CARE AND PRACTICES:

A PHENOMENOLOGICAL STUDY ON BEREAVED WOMEN IN KOREAN CHURCHES

환대적 돌봄과 실천 제시: 한국교회 사별 여성들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A Professio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Sunhee Park

May 2019

This Professional Project completed by

Sunhee Park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Yong Hwan Kim, Chairperson

Namjoong Kim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19

ABSTRACT

PROVIDING HOSPITABIE CARE AND PRACTICES:

A PHENOMENOLOGICAL STUDY ON BEREAVED WOMEN IN KOREAN CHURCHES

by

Sunhee Park

The project began with the question of "how can Korean churches take care of women who had been bereaved their spouses?" For this purpose, I interviewed the bereaved women in depth about their experiences in church. As a result, following four categories were derived: an unfamiliar empty space, disconnected relationship, partial recovery, and temporary care. I interpreted them in terms of hospitality theology and emphasized why it is necessary for the Christian women who lost their spouses to be the objects of hospitality and to receive hospitality care. Now, churches should help them change their lives by healing the alienation, wounds and conflicts they experienced after their spouse's death. Therefore, I proposed practical alternatives to hospitality care in terms of hospitality theology as follows: first, a space of hospitality to speak; second, a space of hospitality with a dinner table; third, the space of hospitality with rest; and fourth, a space of hospitality with regular gathering. I hope that this hospitality will save the bereaved women, heal their wounds and lead to a life that changes with spiritual growth.

KEYWORDS: Bereaved Women, Mourning, Hospitality Theology, Hospitality Care, Space of Hospitality

국문 초록

환대적 돌봄과 실천 제시: 한국교회 사별 여성들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by

Sunhee Park

이 프로젝트는 한국 교회가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을 어떻게 돌봐 줄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은 교회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심층 면담하였다. 그 결과 4 가지 범주로 도출하였고 도출된 4 가지 범주는 낯선 빈자리, 단절된 관계, 부분적 회복, 일시적 돌봄이다. 이를 환대 신학의 관점으로 해석하므로 배우자를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이 왜 환대의 대상이며 환대적 돌봄이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이제 교회는 사별자들이 경험하는 소외와 상처, 갈등 등을 치유하여 삶이 변화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이 환대신학의 관점에서 '환대적 돌봄'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말할 수 있는 환대의 공간. 둘째, 밥상이 있는 환대의 공간. 셋째, 쉼이 있는 환대의 공간. 넷째, 정기적 모임이 있는 환대의 공간이다. 이러한 환대적 돌봄이 사별한 여성들을 살리고 상처가 치유되어 영적 성장과 함께 변화되는 삶이 되길 소망한다.

KEYWORDS: 사별 여성, 애도, 환대 신학, 환대적 돌봄, 환대의 공간

SUMMARY

The deep loss facing the death of a spouse is a very natural human form. Churches should have pastoral care to respect, accept and embrace the loss of the dead in itself. However,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loss of the bereaved, the church's pastoral care of the bereaved is simply a funeral service. After the funeral, there are only a few comforting words given by pastors and acquaintances of the church community, but there is no systematic care to take place.

Then how can we heal a human who is suffering from loss due to his/her bereavement? How can the church take care of a woman who suffers from the loss? We can't understand the complex, deep emotions that only people who have lost their spouses would have. Saying "stop mourning and cheer up" to give them courage can be violence. Therefore, the church should pay attention to experiences and desire of those who are deeply mourning after their bereavement, and there should be continued care for them. For this purpose, I interviewed the bereaved women in depth about their experiences in church.

In-depth interviews resulted in four categories, eight themes and 27 topics. The four categories are an unfamiliar empty space, a broken relationship, partial recovery, and temporary care. By interpreting this result from the perspective of hospitality theology, I argued that the women who had lost their spouses are 'the other' and strangers who needed hospitality in the church. Pastoral care for the bereaved is now effective, but in some cases it is not. Interviews showed that there was a greater cure for being with them than any comforting word, rather than asking them to stop crying too soon.

The process of mourning for each bereavement that one experiences will be necessary for spiritual maturity. Therefore, the church should no longer turn a bling eye to their suffering and should pay attention to this mourning process and accept "here and now." The church should be

aware of the difficulties of the bereavement victims suffering from changes after the bereavement and make efforts on healthy spiritual care. In other words, to restore the pain of loss, the church should be a place of hospitality with hospitality care by 'suffering together' with the 'compassionate gaze' of 'Jesus' gaze'.

Therefore I suggested 'to be the space of hospitality' as the practice of hospitality care as follows: first, a space of hospitality to speak; second, a space of hospitality with a dinner table; third, a space of hospitality with rest; and fourth, a space of hospitality with regular gatherings. Specific practices were also presented for this purpose. Now, the church should develop a more active mission for the bereaved, rather than comforting them that they have done their role with a few days of funeral services. Through this project, we hope that the hospitality care will be more active, saving the wounded, healing the wounds, and that spiritual growth will be achieved where life changes.

국문 요약

배우자의 죽음을 마주한 깊은 상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한 인간의 모습이다. 교회는 사별자들의 상실 그 자체를 존중하여 그대로 받아 주고 껴안아 주는 목회적 돌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별자들의 상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교회의 사별자에 대한 목회 돌봄은 단순히 장례예식에 그치고 있다. 장례식 후에는 목회자나 교회 공동체의 지인들을 통해 안부인사 정도가 있을 뿐 체계적인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별로 인해 상실감에 빠져 있는 한 인간을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는가? 배우자와 사별하고 상실감에 처해 있는 여성을 교회가 어떻게 돌봐 줄 수 있는가? 우리는 배우자를 잃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복잡하고 깊은 감정들을 알 수가 없다. 때로는 '그러지 말라. 힘을 내라.' 등 용기를 주고자 한 위로의 말 자체가 폭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별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는 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사별자를 위한 지속적 돌봄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배우자와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이 교회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결과 4 개의 범주와 8 개의 주제 군과 27 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4 개의 범주는 낯선 빈자리, 단절된 관계, 부분적 치유, 일시적 돌봄이다. 이 결과를 환대신학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은 교회에서 환대적 돌봄이

필요한 타자(他者)요, 낯선 자임을 논증하였다. 현재 사별자에 대한 목회적 돌봄이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너무 빨리 그만 울라고 하는 것 보다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 어떠한 위로의 말보다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것이 더 큰 치유가 있는 것을 인터뷰 내용으로도 알 수 있었다.

누구나 한번은 겪게 되는 사별로 인한 애도의 과정은 영적 성숙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 이상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회피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애도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금-여기'를 수용해 주어야 한다. 배우자와 사별한 후의 변화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별자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건강한 영적 돌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상실의 아픔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의 시선'인 '연민적 시선'으로 '함께 고통'하는 환대적 돌봄이 있는 환대의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이 환대적 돌봄에 대한 '환대의 공간 되어 주기'를 제언하였다. 첫째, 말할 수 있는 환대의 공간. 둘째, 밥상이 있는 환대의 공간. 셋째, 쉼이 있는 환대의 공간. 넷째, 정기적 모임이 있는 환대의 공간이다. 또한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들을 제시하였다. 이제 교회는 사별자들에 대해 며칠 간의 장례예식으로 돌봄을 다했다고 위안하기 보다는 더 적극적인 사별목회 사역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환대적 돌봄의 사역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상처입은 이들을 살리고 상처가 치유되며 삶이 변화되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길 소망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Introduction)

내 나이 33 세에 둘째아이를 출산하면서 친정 엄마의 보살핌이 가장 필요할 때 사랑하는 엄마를 하나님 품에 보내 드렸다. 나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어둠과 막막함이었다. 엄마를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누군가 내 울음을 들어줄 위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하였다. '엄마가 천국에 가셨으니 슬퍼하지 말라.'는 한마디는 엄마를 향한 울음을 멈추게 하였고 믿음이 좋은 딸로서 엄마를 기쁘게 천국으로 보내 드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그런 나를 지켜보는 남편을 많이도 힘들게 하였다. 그렇게 10 여년이 지난 후 죽음 준비교육을 공부하면서 다시 마주한 엄마의 죽음 앞에서 나는 그동안 못다 흘린 울음을 쏟아 낼 수 있었다. 그만 울라는 사람 하나 없는 애도의 공간에서 모두가 눈물이 되어 안아줄 때 비로서 나는 웃음으로 엄마와 해피엔딩을 하게 되었다. 눈물을 막지 않고 엄마를 노래할 수 있도록 나의 말을 들어주었던 환대의 경험은 나를 상처입은 이들을 그대로 안아주고 담아주는 치유자의 길로 인도하였다.

A. 문제 제기

현재 상담사인 나는 상담현장에서 배우자를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을 만난다. 이들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변화된 삶으로 인해 죽음까지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워 상담실을 찾아왔다고 한다. '살려 달라, 살고 싶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는 어느 내담자의 외침은 나로 하여금 배우자를 사별한 기독교 여성을 향한 '연민적 시선'을 갖게 하였다. 강남순에 의하면

‘연민적 시선’이란 동정심이나 이타주의가 아니라 ‘함께 고통함’(compassion: suffer-with)을 의미하며 예수가 모든 소외된 자들을 향해 가졌던 그 연민의 시선을 말한다.[1]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흔히 하는 위로가 ‘기도해 주겠다’이다. 나의 경우 그 위로는 ‘함께 고통 함’ 보다는 동정심이나 인사치레가 되는 우를 범하기도 하며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회피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소외된 자를 향해 연민적 시선을 가졌던 예수의 시선을 배워 실천하는 것일 것이다. 만약에 배우자와 사별한 이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시선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천국 가셨는데 기뻐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는 거 아니야.’등이라면 이런 시선 앞에서 이들의 눈물이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 무엇이 배우자를 잃고 상실의 아픔에 있는 이들을 위한 무조건적 연민의 시선이며 함께 고통 함인지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인구고령화로 사별 후 홀로된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특히 남성에 비해 65세 이상 여성의 70%가 배우자와 사별하여 홀로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2] 그러므로 오랜 기간을 남편없이 혼자 살아야 하는 여성들에게 배우자 사별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살아 가면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나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많은 슬픔, 눈물, 두려움, 그리움, 또는 분노로 다양한 부정적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사람을 힘들게 한다. 더구나 현대는 핵가족 사회로 인한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사별을 경험한 여성들의

[1]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159.

[2] 손의성, “성공적인 노년목회와 사별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코람데오닷컴, accessed September 4, 2018,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7982.

경우 긍정적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고 배우자 사별은 한 가정의 가장 큰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3]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해 가고 우리는 서로 마음을 나눌 여유조차 없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는 현실속에서 신앙공동체인 교회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더욱 더 필요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노래졌다던 어느 내담자의 흐느낌처럼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은 홀로 살아 갈 경우 사회적 불편 등 많은 것을 잃게 된다.[4] 혼자라는 외로움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그 아픔이나 고통을 뭐라 표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익숙했던 삶에서 사별 후 낯선 삶으로의 변화는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배우자를 잃는 상실의 아픔은 다른 어떤 상실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깊은 상처를 남기므로 아픔이 큰 만큼 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다.[5] 따라서 교회는 배우자 사별 후 홀로 남겨진 여성들을 향한 관심과 돌봄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어떤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지 이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프로젝트는 질적연구에서의 심층적 면담을 통해 배우자를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의 교회에서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로 배우자를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을 위한 환대 신학의 관점에서 환대적 돌봄의 실천을 제시하고자 한다.

B. 논지와 토론

배우자를 사별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문제는 날로 그 수가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며 2017

---

[3] 김희선, "배우자 사별 상실에 대한 심리적 변화와 기독교상담 방안" (DMin project,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7), 86.

[4] C.C. Neuger, *Counsel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1), 212-3.

[5] 이창규, "사별의 슬픔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와 신앙공동체를 통한 목회 돌봄과 상담," *신학과 실천* 53 (February 2017): 331.

년 통계에 의하면 국내 10가구 중 1가구는 배우자를 여읜 사별가구(207만1159가구, 2015년 기준)다.[6] 배우자의 사별 가구 중 연령이 65세 이상 비율은 67.8%로 104만 3,510명이며 남편이 사망한 여성들의 가구 수가 82.6%이다. 즉 경제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이 많다는 증거이며 남편의 사별로 인한 여성들이 가정을 어렵게 꾸려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한 나이 들어 노동력을 잃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노년기의 배우자 상실은 인생의 동반자를 잃어버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서로에게 갖는 사랑과 정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함께 나눈 정체성은 배우자의 상실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7] 이로 인하여 홀로 남겨진 배우자는 많은 혼란속에서 또다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교회는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외면할 것인가?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의 교회이고 누구를 위한 교회이며 교회가 돌봐야 할 환대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미첼(Kenneth R. Mitchell)과 앤더슨(Herbert Anderson)에 의하면 인간이 인생을 통하여 물질적 상실, 관계의 상실, 심리 내적 상실, 역할의 상실, 체계의 상실 등을 겪으며 거의 모든 상실들은 하나 이상의 유형이 혼합된다.[8] 배우자를 사별한 이들은 관계의 상실을 겪지만 사회적 생활이 바뀌면 역할의 상실도 경험할 것이다. 그들의 정체감이 남편에게 의존했다면 심리 내적 상실도 함께 경험한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은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감정적인 고통 즉 슬픔, 비통, 충격, 분노, 죄책감, 우울, 상실감, 외로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건강문제, 경

[6] 신성식, "사별가구 41%가 최저생계비 못 벌어…기초연금 논의를," *중앙일보*, February 3, 2017, https://news.joins.com/article /21205397.

[7] 손의성, "성공적인 노년목회와 사별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8] Kenneth R. Mitchell and Herbert Anderson, *All Our Loses All Our Grief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36-46, quoted in 홍구화, "상실로 인한 슬픔에 대한 효과적 위로 사역,"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7, no.1 (January 2010): 327-8.

제적인 문제, 사회활동의 위축과 역할수행의 어려움 등을 경험한다.[9]

알렌 울펫(Alan D. Wolfelt)가 제시한 사별 슬픔의 차원(grief dimension)을 살펴보면 충격차원(impact dimension)에서는 중요한 대상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쇼크, 부인, 무감각한 상태로 믿을 수 없어 하며,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직면차원(facing dimension)에서는 와해(혼란, 죽음 사람 찾기, 그리움), 불안, 패닉, 두려움, 생리적 변화, 폭발적인 정서, 죄책감, 후회(자신의 죄를 확인해 봄), 상실감, 공허감, 슬픔, 안도와 해방감을 느끼게 되며, 이때는 주로 죽음의 현실을 경험하고 이를 표현하며, 정서적인 고통을 치러낸다. 조정차원(adjustment dimension)에서는 '고인과의 관계를 기억으로 전환시키고 상실에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미래를 위해 자신의 삶을 조직하고 계획한다. 또한 새롭고 건강한 관계를 다시 수립하고 삶의 다른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10]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충격속에서 정서적 고통을 치르고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까지 사별자들에게는 공간과 시간 속에 함께 고통할 지지자들이 필요하다. 더더욱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 앞에서는 세상도 운명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들은 어딘가에 삶의 의미를 묻고, 아무런 대답도 찾을 수 없는 잔인한 질문을 던진다. 의례적인 대답은 마치 조롱처럼 들리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11] 이런 고통속에 있는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에 대하여 장례식 이후 적절한 돌봄이 없을 경우 사별로 인한 고통은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쏟아지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종교적 신념과 가치체계

[9] 신성식, "사별가구 41%가 최저생계비 못 벌어…기초연금 논의를."

[10] 최지영, "사별과 목회적 돌봄: 관계적 체계 모델,"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vol. 24, no. 3 (September 2013): 300.

[11] Verena Kast, *Trauernt 애도,* trans. 채기화 (서울: 궁리출판, 2015), 22.

의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12] 김영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회의에 도달하는 심리적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인간은 고난 속에서 소외감과 섭섭함을 느끼며 그 고통이 신체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혼자라는 강렬한 느낌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또한, 자신의 처참하고 불행한 모습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쉽게 잃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이 위축되어 답답함을 느끼고 그런 상황에서 억울함조차 느낀다.[13]

이처럼 인간은 이 땅에 혼자이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고통스러워진다. 또한 고난은 인간을 육체적, 심리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대한 회의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온다.[14] 따라서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은 충격과 정신적인 혼돈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존재감이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도 한때는 존재감을 갖고 행복하게 생활하였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사별 전에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던 이들이 배우자 사별 후 존재하는 비존재처럼 위축되기도 하고 소외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창규는 슬픔을 당한 사별자들에게 신앙공동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며, 어떻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사별의 과정에서 교회 및 목회자의 관심과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고,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신앙공동체가 사별자들을 차별하고

---

[12] 박재표, “로뎀나무 전인 치유 학교를 통한 사별 가족 돌봄” (DMin project, 장로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2), 98.

[13] 김영희, “고난 속 고통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고통을 통한 인생의 의미,” *복음과 상담* vol. 14 (May 2010): 220.

[14] 김영희, 228-9.

> 편견을 갖고 대하는 등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도 발견하였다. 사별자들은 사별자모임을 통해 가장 큰 위로와 도움을 제공받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신앙공동체가 사별자들을 배려하고 전문적인 돌봄과 상담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15]

이처럼 슬픔을 당한 사별자들에게 신앙공동체는 유익과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이들은 교회안에서 사별 이후 달라진 사람들의 여러 시각들로 인해 편견과 소외를 경험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사별 이후 신앙공동체는 무관심하면서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처럼 차별을 보이기까지 했으며 사별자 모임 외의 신앙공동체는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어서 공동체 안의 여러 모임들에는 참여하기 힘들었고 오히려 개인적인 신앙훈련이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신앙공동체가 가정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부부 위주의 프로그램과 모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별 이후 교회 모임을 부담스러워하며 자꾸 회피하고, 더더욱 부부가 함께 했던 모임에서는 사별 이후 더 마음이 힘들어 지고 있다.[16] 줄리 엑슬린(Julie J. Exline)과 조슈아 그럽스(Joshua B. Grubbs)는 사별자에 대한 교회의 수용적이지 못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기독교상담자나 교회는 사별자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 특히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표현까지도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가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면 참자기가 아닌 거짓자기로 살아가게 되듯이, 교회가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상처 입은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 이러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에 맞춰 자신의 슬픔의 감정을 억누르고 애도과정을 지연시키게 될 것이다. 애도과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그 밖의 다른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17]

---

[15] 이창규, 306.
[16] 이창규, 318-9.
[17] 최지영, 315-6.

그리스도인은 이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사별자들을 외면하고 울음을 멈추게 할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신앙공동체의 의미와 목적은 예수의 마음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사역도 역시 주님의 마음으로 상처입은 자들을 품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compassion)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다. 신앙공동체가 사별자들에게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우리의 나약함, 두려움, 혼란, 고민 등을 함께 나누셨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돌봄의 시작이다.[18] 또한 예수는 모든 인류를 위한 상처의 흔적을 가졌고 버림받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사시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예수의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기에 공동체의 사역에서 섬김이란 분명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19]

배우자 사별이라는 개인적 위기 상황에서 교회내의 목회적 돌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우자 사별 여성에 대한 적절한 돌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회와의 관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배우자를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을 심층 면담함으로써 사별 후 교회내의 경험들을 현상학적으로 탐색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목회자 및 목회 상담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배우자를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이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체계적인 돌봄의 필요성을

[18] 박재표, 17.
[19] 박재표, 18.

인식시키고 사별에 따른 슬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돕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C. 사용할 용어들의 정의

1. 사별(bereavement)

사별(bereavement)이란 중요한 사람 즉 가족을 죽음으로 상실한 객관적 상황을 말한다.[20]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후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경험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21] 사별은 죽음으로 인한 단절이라는 사건 자체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그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영적, 행동적, 신체적 반응의 넓은 범위를 포함하며 특히 사별은 가족에게 슬픔만 아니라 분노와 죄책감 등의 정신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다.[22] 애착이론에서 존 보울비(John Bowlby)는 사별을 돌이킬 수 없는 이별로 보고 비애 반응을 분리불안의 특별한 형태로 보았다. 이에 따라 사별 초기에는 심한 분리불안이 나타나며, 그 후에는 개인의 고통 속에서도 의지했던 안정적 기반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혼란과 비참함이 뒤따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23]

---

[20] Wrigh H. Norman, *Crisis Counseling 위기 상담학,* trans. 전요셉 and 황동현 (서울: 쿰란, 1998), 182-3.

[21] M. Field and R. Behrman, *When Children Die: Improving Palliative and End of Life Care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2003), 553-79, quoted in 이윤주, 조계화 and 이현진, "사별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분석," *상담학 연구* vol. 8, no. 3 (September 2007): 840.

[22] Cook S. A. and D. S. Dworkin, *Helping the Bereaved: 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New York: Basic Books, 1992), quoted in 황선희, "사별에 따른 지속된 비애 증상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MA thesis,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6.

[23] N. P. Field and, C. Filanosky, "Continuing Bonds, Risk Factors for Complicated Grief, and Adjustment to Bereavement," in *Dath Studieds* vol. 34, no. 1 (2010): 1-29, quoted in 황선희, 5.

2. 슬픔(greif)

슬픔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나 대상과의 관계에서 죽음 또는 이별 등의 고통스러운 상실을 경험할 때 그것에 반응하여 생기는 당혹스럽지만 정상적인 감정의 덩어리이다. 즉 죄책감, 수치심, 외로움, 불안, 공포, 당혹, 공허함, 깊은 슬픔, 절망, 무력감은 모든 슬픔의 부분들이며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슬픔은 우리가 상실을 경험할 때 느끼는 위의 모든 감정들의 덩어리거나 몇가지의 감정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슬픔은 질병이 아니며 기능적 정신장애, 일반적인 우울증, 불안장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고통, 죽은 사람의 환영에 몰두함, 죄책감, 적대적인 반응, 행동의 패턴을 상실해 버리는 증상' 등은 정상적인 슬픔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24]

3. 애도(mourning)

애도(mourning)란 모든 의미 있는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을 일컫는다. 애도의 지배적인 심리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러한 고통스러움은 외부 세계에 대한 흥미의 상실, 상실한 대상에 관한 기억에의 몰두, 새로운 대상에게 투자할 수 있는 정서적인 능력의 감소 등을 수반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애도는 병리적인 것이 아니며 개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실에 적응하고 관계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한다. 진정한 애도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을 잠시 부인하지만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복잡한 내적 과정을 거쳐 회복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애도는 상실한 대상과의 관계가 점차 변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상실한 대상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고 상실한 대상 없이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극복의 과정이다. 파크스(C. Murray Parkes)는 애도를 '현실 인식의 과정'으로 외부에

[24] Anderson, 57-9.

이미 일어난 사건을 자기의 심리 내면에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죽었지만 내면의 세계에서 그 사건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간과 심리적인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25]

4. 목회적 돌봄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 라틴어로는 cure of souls 를 뜻하는 cura animarum)은 예수의 사역 이후로 교회의 사명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이 되어왔다.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로를 사랑해야 했으며, 그리스도가 목숨까지 내어주도록 사랑한 이세상 사람들을 돌보았다 (요 15:12-17).[26] 그리고 '돌봄'은 관심을 말하고 '목회적'이란 말은 관심의 깊이와 방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목사의 관심은 복음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셨듯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복음의 대화 속에서 목사의 성숙한 인격과 목사와 교인과의 깊은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목회적 돌봄이 있게 됨을 설명한다.[27]

기독교적인 영혼 돌봄은 언제나 교회의 삶과 사역의 중심부에 있어 왔으며 치유, 지지, 화해, 인도 네 가지 주요 요소가 포함되어 왔다. 치유(healing)는 영적 육체적 손상을 극복하고 온전함을 향해 움직이도록 돕는 노력들을 수반하며 그 초점은 언제나 인간에게 있었다. 지지(sustaining)는 상처로 고통 하는 사람이 회복하고 초월하도록 돕기 위해 계획된 돌보는 행위들을 말한다. 화해(reconciling)는 깨어진 관계들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말한다. 돌봄에

---

[25] 김진영, "애도(哀悼)과정의 목회상담적 이해," *목회와 상담* vol. 15 (November 2010): 126-7.

[26] Carroll A. Wise and John E. Hinkle, *The Meaning of Pastoral Care 영혼을 돌보는 목자,* trans. 이기승 (서울: 세복, 1998), 36-7.

[27] Roger Hurding, *The Bible & Counseling 성경과 상담,* trans. 문희경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3), 79.

존재하는 이 요소는 기독교적인 영혼 돌봄의, 단순히 개인적인 본성이 아닌, 공동체적 본성을 대변한다. 마지막으로 인도(guiding)는 사람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그러므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28]

D. 문헌 자료의 평론적 검토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이 상실에 대해 신앙적으로 답을 찾지 못하고 억압으로 인하여 지연시키게 되면 언젠가는 그들의 감정과 체계를 혼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환대신학에 기반한 목회적 돌봄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김준은 교회 안에 돌봄 사역이 확대되면서 관련된 분야가 갖는 전문지식과 훈련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이 교회안의 돌봄 사역자들에게 필요하지만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회의 돌봄 사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의 돌봄의 자세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9]

이창규는 사별의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앙공동체가 가진 역할과 의미에 대해 목회자를 비롯한 전체 공동체가 함께 통전적이고 다각적인 공동체적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사별자 개개인의 개별성과 독특함, 그리고 문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였다.[30] 이창규의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사별자들을 위한 신앙공동체를 통한 목회 돌봄 방안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

[28] 이성혁, “돌봄사역을 통한 갈등회복과 신뢰공동체 만들기” (DMin project, 장로회신학대학원, 2008), 72-3.

[29] 김준, “교회의 돌봄 사역: Heinz Kohut의 자아심리학과 신약의 제자의 모습을 통한 돌봄 사역자의 자세,” *복음과 실천신학* vol 18 (November 2008): 10.

[30] 이창규, 331.

안유숙은 교회 공동체가 여성 노인의 배우자 사별적응을 위하여 종교적 신앙의 의미부여와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효과적 대처전략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돕고 사별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회예배나 의식을 통하여 여성노인들이 떠나간 배우자를 향한 후회와 죄책감을 솔직하게 표출하고 죽음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죽음준비 교육을 통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31]

최지영은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사별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기독상담자와 교회 공동체는 사별자에게 지지체계로서 안아주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사별자는 교회의 돌봄을 받음으로써 이들이 앞으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지지체계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32]

김희선은 사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신체적 신학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상실을 회복하기 위한 기독교상담의 역할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상실의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과 삶에 미치는 영향 등 다면적인 분석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상실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33]

여러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배우자를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장례식 이후의 지속적인 목회적 돌봄의 중요성은 알 수 있었으나 실천신학 분야의 교회와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과의 관계 차원에서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배우자 사별 후 교회내 경험을

---

[31] 안유숙, “기독교 여성노인의 배우자 사별 적응 경험 연구,” *목회와 상담* vol. 26 (May 2016): 235-6.

[32] 최지영, 318.

[33] 김희선, “배우자 사별 상실에 대한 심리적 변화와 기독교상담 방안” (DMin project,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7), 4.

확인하고 환대 신학의 관점에서의 목회적 돌봄의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교회는 장례기간 중에만 행해지고 있는 장례예식의 범위를 넘어서 사별 후 남겨진 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한 환대 신학의 관점에서 사별 목회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하기 때문이다.

E. 청중

이 프로젝트는 배우자와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이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알아봄으로써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이 사별에 따른 슬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돕기 위함이다. 이 프로젝트의 청중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청중은 사별자를 위한 목회적 돌봄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다. 신앙공동체가 사별자를 돌보는데 있어 사별자의 상황을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나의 프로젝트는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 참여한 배우자를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과 사별을 당한 가족들이 청중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들이 사별 후 신앙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환대적 돌봄의 실천에 관심있는 모든 교회와 사회가 될 것이다.

F. 범위와 한계

이 프로젝트는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을 위한 환대적 돌봄은 무엇인지 환대신학의 관점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 프로젝트는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을 위한 목회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돌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또한 사별자들의 심리적 변화, 신체적변화, 외상 후 성장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연구에 있어 참여자는 사별자들 중에서도 배우자를 사별한 오육십대 기독교 여성들이다. 이들이 내적 외적으로 겪는 여러 경험 중

신앙공동체인 교회에서의 경험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사별 전 익숙했던 자리가 사별 후 낯설어진 타자의 자리로 옮겨지면서 이들은 어떠한 소외의 경험이 있는지에 집중한다. 이들 또한 교회가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할 환대의 대상이라면 교회는 더 이상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회피해서는 안된다. '예수의 시선'인 '연민적 시선'으로 '함께 고통'하며 상실의 아픔을 회복하도록 돕는 환대적 돌봄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신앙공동체의 환대적 돌봄의 실천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로써 배우자를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을 심층 면담하고 분석한다. 서근원에 의하면 질적연구는 나의 경험과 견해를 내려놓음으로 기존의 자신의 관점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34] 이러한 질적 연구가 되기 위해 나는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상담사라는 전문직업과 지금까지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의 삶을 살았던 내 경험은 많은 시행착오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사별자를 위한 환대적 돌봄을 실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G. 이 논문의 독창성과 공헌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왜 사별한 여성교인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밝히는 연구이다. 사별자를 위한 목회적 돌봄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꼭 필요한 환대적 돌봄에 대한 연구는 없다. 이 프로젝트의 독창성과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적 상담이나 기독교적 상담으로의 접근이

[34] 서근원,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시대의 삶과 문화와 교육, 그리고 질적연구* (파주: 교육 과학사, 2013), 345.

아니다. 둘째, 배우자를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은 환대의 대상이며 환대적 돌봄이 필요하다. 셋째, 대형교회부터 개척교회까지 한국의 모든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환대적 돌봄의 실천들을 제시한다. 넷째,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실천할 수 있으며 모든 사별자나 환대의 대상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는데 의미가 있다.

Chapter II
환대의 신학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을 위한 환대적 돌봄에 관한 연구와 실천을 논하기에 앞서 신앙공동체가 왜 환대적 돌봄을 실천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환대의 신학적 관점으로 환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 환대

우리의 삶에서 환대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우리는 일반적으로 환대라고 할 때 약자들의 필요와 욕구(needs & wants)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환대(hospitality)는 노동과 여행시 휴식을 위한 장소를 뜻하며, 나만의 공간인 우리집은 아닐지라도 가정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35] 그렇다면 배우자 사별을 고단한 노동과 여행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며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휴식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사별 후 교회 공동체로부터 환대라고 할 만한 지속적 돌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돌봄을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일 수 있는 환대의 공간이 나타나 위험에 빠진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준다면 그들은 쉼을 얻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36] 또한 환대(hospitality)는 손님이나 낯선 이방인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에게 기쁨과 새 힘을 주는 것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37] 즉 환대는 낯선 사람을 나의 공간을 열어 들어오게

---

35 John Koenig, *New Testament Hospitality 환대의 신학*, trans. 김기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17.

36 Koenig, 18.

37 정경호,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밥상," *기독교사상* vol. 657, no. 9 (September 2013): 81.

하는 것이며, 이러한 환대가 가능하려면 그를 향한 적대를 거두고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접근을 허락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환대란 그를 향한 모든 적대를 버리고 낯선 타자를 나의 공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낯선 이를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나의 공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정경호는 인간의 존엄성과 환대의 당위성에 대하여 태어난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환대한다는 것은 그 생명이 살 가치가 있는지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칸트 철학의 전통에서 인간은 지극히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존재이며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인 존재이기에 가격을 갖지 않는다. 존엄성의 가격을 계산하고 비교하는 것은 곧 그것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38] 그러므로 환대에도 이익을 계산하거나 가격을 메길 수 없다. 환대는 바로 태어난 생명을 그대로 받아 주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남순도 무조건적인 환대를 신학적으로 '환대의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 먼저 인식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첫째, '환대의 신학'은 한 인간을 사회문화적 정체성, 정치적 위치나 역량 등과 상관없이 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고귀한 인간', '동료 시민'으로 보는 '인민적 시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환대의 신학'은 유한한 얼굴'을 지닌 개별적 존재로 보는 '개별성의 윤리'(ethics of singularity)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개인적 구제나 관대 함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인간의'권리'와'책임'에 관한 담론이고 실천이라는 사실이다.[39]

이는 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 환대의 실천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환대의 신학적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환대의 중요성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 행위를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환대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

[38] 정경호, "환대의 밥상, 환대의 신학 삶," *신학과 목회* vol. 34 (November 2010): 178-9.
[39]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98.

베푸신 환대는 일방적으로 베푸신 신적인 환대로 무조건을 넘어 절대적인 환대이다.[40]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껏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하나님의 환대인 것이다. 그렇게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는 환대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거기에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에게 어떠한 환대를 선물해야 하는가? 메조리 톰슨(Majorie Thompson)은 환대의 본질에 대하여 나의 공간 속에 낯선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진솔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자유롭고, 여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고 안락한 쉼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41] 그러나 나의 공간속에 진심으로 낯선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환대의 본질이라 할 지라도 나를 보호하는 나의 공간을 낯선 이에게 환대의 공간으로 내어 놓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이다.[42]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도 집은 외부 공간과 구별된 내부 공간으로써 우리 삶의 보호막 구실을 하는데 나그네를 맞이함으로써 우리만의 익숙함과 편안함의 리듬이 깨진다고 하였다. 즉 환대를 통해 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고 찾아온 나그네는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불편함을 초래한다.[43]

이러한 불가피한 불편함을 느끼는 주인이 취할 수 있는 환대의 방법이 바로 조건적 환대이다. 조건적 환대는 타자나 낯선 이방인이 우리의 규칙과 삶에 대한 우리의 규범, 더

---

[40] David W Anderson, “Hospitable classrooms: Biblical hospitality and inclusive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 Christian Belief* vol 15, no. 1 (2011): 13-27, quoted in 김은정, “환대적 학습환경과 기독교교육,” *인문학논총* vol. 33 (October 2013): 235.

[41] Marjorie Thompson, *Soul Feast: An Introduction to the Christion Life* 영성훈련의 이론과 실제, trans. 고진옥 (서울: 은성, 2000), 195.

[42] 손운산, “낯선이를 환대하라,” *기독교 사상* vol. 640, no. 4 (April 2012): 263.

[43] 강영안, “향유와 거주: 레비나스의 존재 경제론,” *문학과 사회* vol. 8, no. 4 (November, 1995): 1538-9.

나아가 우리 문화와 정치 체계 등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환대를 제안하는 것이다. 데리다는 이러한 환대를 "초대(invitation)의 환대"라고 부른다.[44] 다시 말해 초대의 환대인 조건적 환대란 낯선 이를 제한적 조건을 걸어 주인의 입장에서 환대하는 것이며 나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대하는 것이다.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이러한 조건적인 환대와 무조건적인 환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 즉 무조건적인 환대의 개념 없이는 조건적인 환대가 있을 수 없고 무조건적 환대와 조건적 환대는 구조적이라서 조건적 환대가 없이는 무조건적 환대를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다.[45] 여기에서 말하는 무조건적 환대란 자신의 집을 아무런 제재나 계약 없이 무조건적으로 개방하여 낯선 손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조건 없이 환대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무조건적 환대는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낯선 이방인의 입장에서 환대하는 것이며 손님을 초청하여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방문하는 타자에 대한 환대이다.[46] 전혀 모르는 낯선 이방인이나 심지어 적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환대를 데리다는 '방문(visitation)의 환대'라고 불렀다.[47]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무조건적인 환대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선을 배워 실천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는 조건적 환대를 시작으로 무조건적 환대를 실천해 갈수

---

[44] Giovanna Borradori,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테러시대의 철학: 하버마스, 데리다와의 대화*, trans. 손철성, 김은주 and 김준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234.

[45] 정경호,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밥상," *기독교사상* vol. 657, no. 9 (September 2013): 82; Jacques Derrida, *De l'hospitalite' 환대에 대하여*, trans. 남수인 (서울: 동문선, 2004), 158-9.

[46]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241-2.

[47] Borradori, 234.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더 환대에 대하여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엘리자베스 뉴먼(Elizabeth Newman)은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와 문화에서 엿볼 수 있는 환대의 종류로 감상적인 환대, 사유화된 환대, 시상식 환대, 포용적인 환대를 말하면서 이러한 환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볼 때 진정한 환대가 아니며 진정한 환대는 집을 잃어버린 자들을 맞이하는 환대라고 한다. 이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환대이다.[48] 여기서 하나님의 환대는 무조건적인 환대를 넘어 초월적인 환대를 말하며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자, 등등 신음하고 절규하는 자들과 사랑을 나누는 신적인 환대이다. 최병학과 오정대는 '무조건적 환대'를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초월'의 개념을 아듀(adieu)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어원적 의미로는 첫째, 타자와 만났을 때 하는 인사(축복) 둘째, 죽음을 포함해서 떠날 때 하는 인사(축복) 셋째, '신에게로 가다(à Dieu) (to the Lord)' 로 들 수 있으며 세 번째 의미인 신과의 만남은 오직 첫 번째 의미인 타자와의 만남에 의존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49]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낯선 자인 타자를 위해 선뜻 환대의 공간을 내어 주지 못한다. 헨리 나우웬(Henri Jozef M. Nouwen)은 낯선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은 매우 양면적이고 그들을 나의 삶 속으로

---

[48] Elizabeth Newman, *Untamed Hospitality: Welcoming God and Other Strangers* (MI: Brazos Press, 2007), quoted in 정경호, "환대의 밥상, 환대의 신학 삶," *신학과 목회* vol. 34 (November 2010): 182-3.

[49] 최병학 and 오정대, "환대와 포용의 윤리, 그리고 포옹," *윤리교육연구* vol. 49 (July 2018): 207-20.

초대하지 못함은 적대감과 두려움, 염려 등이 동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50] 이러한 걸림돌로 인하여 우리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를 갖게 되고 흔쾌히 나의 공간을 내어 주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진정한 환대는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적이 아닌 친구로서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51] 다시 말하면 환대란 낯선 타자에게 자리를 주고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그를 다시 한 번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 안에 자신의 자리를 갖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52] 교회 공동체가 사별자들의 자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며, 교회 공동체가 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할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온전한 나의 공간에 낯선 이가 들어와 그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변화를 기다려 주는 무조건적 환대의 실천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재 창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에도 새로운 차원을 부여할 수 있다.[53]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환대를 실천함에 있어 누가 환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B. 환대의 대상

'누가 환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란 물음 앞에 환대의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환대를 종합해 보면 환대는 낯선 자나 나그네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이다 또는 사회 안에 있는 그들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로써 자리에 딸린 권리까지 주는

---

[50] Henri Jozef Machiel Nouwen, *Reaching Out: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 영적 발돋움,* trans. 이상미 (서울: 두란노, 2007), 80.

[51] Nouwen, 85.

[52]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사상사, 2015), 193.

[53] Nouwen, 79.

것이 자리를 주는 것이다. 또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환대를 통해 없던 자리가 만들어져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권리가 없던 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환대이다.[54] 따라서 환대해야 할 대상은 타자, 이방인, 낯선 자, 나그네를 의미하며 나그네는 히브리어로 '게르'(גר, 나그네)이다.[55] 채이니(Marvin L. Chaney)는 '게르'의 지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게르'는 성서에 등장하는 "나그네"(sojourners)로 가뭄이나 기근, 또는 잉여 노동력 제공 같은 사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종종 한 국가 내부에서 발생되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나그네"를 생기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국가 내부의 전쟁이었다. '게르'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본래 살던 고장을 떠나서 살아야 했던 자였다. 그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권리나 지위도 없었다.[56]

이스라엘 사회에서 '게르'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지니지 못한 자들이었다면 구약성서에서 '게르'는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대표하는 고아와 과부와 함께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의 범주에 포함된다.[57] 그러므로 '게르'는 그저 외국인이나 이방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주변의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주변의 약자들인 '게르'가 여기서는 배우자와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회 공동체안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불행하거나 고난을 겪고 있는 약한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주면서 자신을 수혜를 주는 사람처럼 여기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

[54] 김현경, 207.

[55] 왕대일, "나그네(게르, גר)-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vol. 113 (June 2001): 102.

[56] Marvin L. Chaney, *The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Sanctuary and Asylum: A Handbook for Commitment* (Geneva: WCC, 1990), 14-5, quoted in 왕대일, 108.

[57] 왕대일, 104.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 물을 달라 하시므로 (요4장7절) 그녀에게 '당신도 귀한 사람이고 무언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방식으로 먼저 다가가 게르였던 여인을 귀하게 존중해 주셨다. 배우자와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이 상처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을 포기할 때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예수처럼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주고 안전한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한다.

구약성서에서 보듯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약자 즉 고아와 과부와 함께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을 '게르'라고 한다면 이방인이나 낯선 자만이 '게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우리 모두가 '게르'일 수 있다. 게르는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게르'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게르'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 환대의 사역임을 깨닫고 환대의 사역을 실천해 가야 한다.[58] 예수는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조롱받던 연약한 변두리 타자들에게 조건 없이 찾아가고 초청하여 그들을 환대하므로 우리에게 환대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셨다. 나의 공간은 온전히 내어 주는 환대야 말로 예수의 핵심 사역이라 하겠다.[59] 예수는 이 땅에 오시어 가난하고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한 환대의 삶을 사셨다. 예수의 환대의 실천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후의 심판 이야기(마 25:35-46)를 통하여 환대가 예수의 핵심 사역이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명임을 가르치셨다.[60] 지금도 예수에게 우리는 환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환대의 대상은 제일 먼저 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환대를 실천한다는 것은 환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속에 살아가고

---

[58] 왕대일, 121.

[59] 차정식, "역동적 삼각관계와 공동체의 윤리-빌레몬서와 요한삼서를 중심으로," *신약논단* vol. 19, no. 2 (June 2012): 612.

[60]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247.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을 환대의 대상인 '게르'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이러한 환대의 삶을 실천할 때 자리도 권리도 존중도 없이 비존재로 살았던 '게르'들이 치유될 것이다.[61] 이 땅에 스스로 게르가 되어 오신 예수가 인류를 향해 가졌던 절대적인 환대를 우리는 경험하였다. 그것이 예수의 핵심 사역인 환대 사역이며 그 환대의 사역을 통해 이 세상에 '치유와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62] 우리의 작은 환대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 영성의 본질인 '타자를 위한, 타자를 향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63]

C. 환대의 유익

환대의 유익은 누구에게 가는가? 환대를 받은 낯선 자인가? 환대를 베푼 자인가? 헬라어 명사 '제노스'(ξένος)는 손님, 나그네, 주인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동사 '필로스'(φίλος)는 "손님으로 환영하다"라는 뜻과 "놀라다"와 "나그네로서 어떤 이 혹은 어떤 것을 소개하다"의 뜻이 있다.[64] 이 명사와 동사의 합성어가 신약성서에서 환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필로크세니아'(φιλοξενία)이다. 이 뜻은 '본질적으로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즉 '낯선 자를 사랑함'이란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환대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대를 통해 주인과 나그네의 관계속에 나타나는 신비한 반전과 같은 기쁨을 의미한다.[65]

그렇다면 환대의 유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상담의 현장에서 유독 힘든 내담자들이

---

[61] 손운산, 264.

[62]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공정한 환대-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trans.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48.

[63] 이후정, "이웃 사랑과 환대의 영성," *기독교 사상* vol. 674, no. 2 (February 2015): 206-7.

[64] Koenig, 28.

[65] Koenig, 28.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고 함께해줄 때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길 때 그동안의 고생은 오간데 없고 내담자 보다도 더 기쁜 일을 종종 경험한다. 상담은 내담자에게도 유익이지만 상담자에게는 더 큰 보람과 유익을 가져온다. 파커 팔머(parker Palmer)는 환대의 유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환대란 우리의 가정의 공간이든 혹은 우리들 개인의 인식과 관심의 공간이든 간에, 우리 개인의 공간으로 그 나그네를 초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떤 중요한 변형이 일어난다. 우리 개인의 공간은 순식간에 확대되어져 더 이상 견고하지도, 답답하지도 또 엄격하지도 않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이며, 자유롭다. 그리고 우리의 공간 역시 빛으로 환해진다. 그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다른 눈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이 새롭게 된 것을 알게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66]

낯선 이를 나의 공간에 초대한다는 것은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나그네에 대한 환대가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확장시켜 준다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차별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약자를 조건없이 환대해야 할 사명을 갖게 된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외되고 상처입은 이들의 두려움과 고통속으로 들어가 교제함으로써 함께 자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67]

사별자의 돌봄에 있어 환대란 사별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려면 먼저 자신과 거리를 두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집중한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필요와 걱정과 긴장 등에 마음을 빼앗길 때는 그들에게 집중한다는

---

[66] 오오현,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공간으로서 환대에 관한 소고," *신학과 실천* vol. 38 (February 2014): 324.

[67] Henri Jozef Machiel Nouwen,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trans. 최원준 (서울: 두란노, 2003), 108.

것이 더 어려워진다.[68] 또한 사역자에게 있어 환대란 환대의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지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그것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역자를 신뢰하고 사역자의 삶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삶이 사역자의 삶과 연계되어 함께 있기 때문이다.[69]

그러므로 환대는 우리의 삶에 절실히 요구되는 치료적 도구라고 생각한다. 환대라는 단어에는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예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으며 몸소 환대의 사랑을 실천한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들을 향한 유익을 찾을 수 있다. 환대를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유익은 그들의 상실과 아픔 그리고 고통에서 빠르게 벗어나와 무거운 멍에를 벗고 참 자유 함으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나한자 소외된 자들을 향한 환대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가정이 안정적이고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지는 유익이 있다.

[68] Nouwen, 120.
[69] Nouwen, 130

Chapter III
질적 연구 방법과 논의

본 장에서는 배우자와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이 사별 후 교회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심층 면담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를 환대 신학의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교회가 이들을 위하여 어떠한 환대적 돌봄을 실천해야 하는지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A. 연구 대상

이 프로젝트의 연구 참여자는 배우자를 사별한 기독교 여성으로 사별기간이 2 년에서 13 년이 지난 50 대 3 명, 60 대 3 명, 총 6 명이며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개척교회부터 재적인원이 1,500 명정도 되는 교회에 출석하고 배우자의 장례식에서 장례예배 경험이 있는 배우자를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이다.[70] 인터뷰는 8 명을 하였으나 2 명은 실패하였다고 생각하여 제외시켰다.[71]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디에도 어떠한 자료도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면담 내용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에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동의를 구할 것이며 동의서에는 학교에 대한 정보와 담당교수의 연락처를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

[70] 프로젝트 연구 참여자를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상담실을 찾는 사별자들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여성들이었으며 같은 사별이라 하더라도 여성과 남성의 경험은 다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배우자를 사별한 남성은 다음 프로젝트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았다.

[71] 구두시험 중 참여자에 대한 질문에 답하던 중 2 명은 인터뷰 실패로 제외하였다고 하였더니 교수진으로부터 그 또한 실패가 아니며 연구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제외된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1 명은 지금은 다 잊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였고 1 명은 목회자 사모로서 평신도와는 또 다른 경험을 들으면서 사별한 사모에 대한 돌봄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경우는 상담을 하는 것으로 전문상담가로서의 도움을 주고 있다. 면담시 판단중지를 하였던 1, 2, 3, 9 번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터뷰에 참가하지 않은 두사람처럼 이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목회적 돌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밝힌다.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별칭을 사용하여 보호할 것이며 면담은 연구자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나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면담 전 비밀보장의 원칙과 면담내용은 녹음할 것을 밝히고 연구가 종료된 후 바로 파기할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면담 참여시 참여자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어느 때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도록 설명하였다. 만약 연구참여 철회를 원할 경우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면담장소는 연구자 개인 사무실로 정하였으며 면담시간은 연구 참여자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미리 약속을 잡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윤리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 '기관 윤리 심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승인번호:2018-14)을 얻어 연구 절차를 밟아 나갔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나이	결혼 년수	사별 년수	신앙경력	자녀	직분
연구참여자 A	50	15	13	모태신앙	아들 1	권사
연구참여자 B	55	30	7	20	아들 2	권사
연구참여자 C	58	36	7	8	아들 2	권사
연구참여자 D	64	27	5	40	딸 2	권사
연구참여자 E	66	42	5	30	아들 2	권사
연구참여자 F	69	43	2	30	아들 1 딸 1	권사

참여자 A는 나이는 50세 결혼 년 수가 15년 차가 되었고 사별 년 수는 13년 차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참여자 B는 나이가 55세로 결혼 년 수는 30년이며 사별 년 수는 7년으로 현재 아들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참여자 C는 나이가 58세로 결혼 년 수가 36년 되었고 사별 년 수는 7년으로 작은 아들을 출가시키고 현재 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참여자 D는 64세로 결혼 년 수는 27년이며 사별 년 수는 5년으로 현재 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참여자 E는 66세로 결혼 년 수는 42년이며 사별 년 수는 5년으로 현재 아들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참여자 F는 69세로 결혼 년 수는 43년이며 사별 년 수는 2년이고 딸을 결혼시키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B. 연구 방법

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현상학적 질적연구란 인간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 체험을 바로 그 체험이게 만드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이를 통해 체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72] 즉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인간이 경험하는 기쁨, 슬픔, 고통, 절망, 위기감, 용기와 자기충전 등의 민감하고 섬세한 체험적 현상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배우자 사별 후 기독교 여성들의 교회내에서의 경험을 연구하는데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현상학적 연구방법인 심층면담을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심층 면담이란 피 면담자의 삶과 경험과 상황을 그들의 언어와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 면담자와 자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만남을 지속시키는 것이다.[73] 연구 참여자의 전체적인

---

[72]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90.
[73]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323.

인생사와 경험을 이해하려 할 때 심층면담은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관찰하기 위해 심층면담은 심층적인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반 구조화된 면담을 할 것이다. 반 구조화된 면담은 면담자가 미리 준비한 일련의 구조화되고 조직된 질문을 한 다음 좀더 풍성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게 피 면담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면담이다.[74]

심층 면담을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사별 후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2. 사별 후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아 본적이 있으십니까?
3. 사별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본적이 있습니까?
4. 장례예식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5. 장례식 후 교회에서 받은 돌봄은 무엇이었습니까?
6. 배우자 사별 후 위로가 된 말과 상처가 된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7. 배우자 사별 후 교회에서 소외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배우자 사별 후 교회에서 받은 지지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9. 배우자 사별 후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0. 남편은 사별 후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11. 배우자 사별 후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12. 배우자의 사별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13. 배우자 사별 후 교회내에서 어떠한 돌봄이 필요합니까?

---

[74]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Methods*, 324.

14. 배우자 사별 후 어떻게 하면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15. 배우자 사별 후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신앙공동체가 행복하겠습니까?

C. 연구 절차

이 연구를 위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콜라이지(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사용할 것이다. 구체적인 콜라이지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면담 시 녹음했던 것들을 옮겨 적고 반복적으로 읽는다.
2. 연구 참가자들의 면담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끌어낸다.
3. 명확하게 밝힌 의미 있는 주제들을 주제, 주제 군, 범주로 조직한다.
4. 조사된 현상적 주제들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기술한다.
5. 분석과정을 통해 나온 본질적인 구조가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유효성을 확인한다.[75]

나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세계에 대하여 선입견 없이 연구에 임하기 위해 면담 시 '판단중지'를 하기로 한다. '판단중지'란 현상에 관한 편견을 인지하고 제쳐 둔 다음 현상을 새롭게 인식하려는 과정으로 현상학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76] 다시 말하면 판단중지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검증'을 하는 것이다. 특히 연구자는 상담자로서 많은 기독교 내담자를 만나면서 참여자들에 대해 더 큰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더 세심한 판단중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주요한 판단중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자는 사별 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클 것이다

2. 참여자는 사별 후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

[75]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107.

[76] Nigel King and Christine Horrocks,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에서의 인터뷰,* trans. 김미영 et al. (서울: 현문사 2013), 253.

3. 참여자는 사별 후 교회내에서 소외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4. 참여자는 사별 후 상실의 슬픔을 감추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5. 참여자는 사별 후 목회자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6. 참여자는 사별 후 천국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더 잘 할 것이다.

7. 참여자는 사별 후 교회에서 자신의 상실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8. 참여자는 사별 후 많이 외로울 것이다.

9. 참여자는 사별 후 목회적 돌봄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10. 대부분의 교회는 사별자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못하고 있을 것이다.

D. 연구 결과 및 해석

나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얻어진 일련의 자료들을 콜라이지(Colaizzi) 분석 과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는 참여자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배우자 사별 후 기독교 여성들의 교회 내에서의 경험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선별하여 27개의 주제와 8개의 주제 군, 4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첫번째 범주(1)은 '낯선 빈자리'로 2개의 주제 군과 8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둘째 범주(2)는 '단절된 관계'로서 2개의 주제 군, 6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셋째 범주(3)은 '부분적 치유'로 2개의 주제 군과 6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넷째 범주(4)는 일시적 돌봄'으로 2개의 주제 군과 7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 자료 분석을 아래의 표에서 요약하였다.

〈표 2〉 자료 분석 결과: 범주, 주제 군 및 주제

범주	주제 군	주제
1. 낯선 빈자리	1) 남편의 빈자리	① 교회에서 다정한 부부를 보면 남편이 그립기도 하고 잘 해 주지 못한 죄책감도 들어요. ② 교회에서 부부모임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먼저 떠난 남편이 용서가 안돼요. ③ 선교회 모임에서 부부 얘기하면 나는 이들과 너무 다른 것 처럼 느껴져요. ④ 선교회 식구들이 남편들 흉을 보다 가도 그래도 남편이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안냐면서 웃을 때 남편이 많이 보고 싶죠. ⑤ 입원해 있을 때 남편 생각이 나고 교회 구석구석에서도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만 더 살다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2) 아빠의 빈자리	① 아들 혼자 키우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하루는 아들이 “저 자식이 나 아빠 없다고 무시하고 놀려.” 하는데 마음 아프고 남편 생각이 났어요. ② 아이들이 방황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의논할 사람이 없으니 혼자 답답하고 힘들죠. ③ 아들들 하고 부딪히고 교회서 서러울 때 남편이 있었다면 덜 힘들었겠죠 남편이 옆에 있다면 실컷 말하고 싶어요.
2. 단절된 관계	1) 아픈 위로	① 장례예배서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고 부활 신앙이 있다’라고 목사님 말씀 하시는데 눈물만 났어요. ② 고난이 축복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하는데 화가 났어요. 그게 왜 하필 나냐구요? ③ 좋은 부부의 글을 단톡 방에 올려 놓고 나를 너무 배려해서 미안해하고 신경 쓰는데 외로워요. 그냥 편하게 대해주면 좋겠어요. ④ 가신분은 가셨는데 얼굴이 좋아 보여 좋네요. 위로라고 하는 말인데 부끄러웠어요.
	2) 교회를 떠남	① 믿는 사람이 너무 울고 다니는 것도 안 좋으니 그만 울고 이제 자유롭게 남자친구도 사귀어 보라고 하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② 어쩌다가 벌써 과부가 되었냐고 묻는데 내가 남편을 죽인 것 같아 교회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도 하고 목사님

		께도 서운한 것이 많아 교회를 옮겼어요.
3. 부분적 치유	1) 하나님에 대한 의존	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가장 많이 되었어요. 마치 주님이 나를 안고 있는 것 같아 한참 울었어요. 난 예수님을 신랑삼아 살아요. ② 더 열심히 성경보고 새벽기도를 더 열심히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셨다는 걸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돼요. ③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서 나하고 똑같이 동심일체가 되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도 위선이 많고 오직 하나님뿐이죠.
	2) 사람에 대한 의존	① 여선교회는 있는 그대로 날 봐주니 눈치도 안보고 내가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죠. 그들에게 위로 받으며 힘든 시간을견뎌 온 것 같아요. ② 새로 옮긴 교회는 또래 목장식구들이 있어 위로가 돼요. 내 형편을 아무것도 안 묻고 말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무슨 짓을 해도 다 잘한다고 응원해 줘서 따뜻했어요. ③ 가장 힘들었을 때 내편 되어 주고 시도 때도 없이 요동치는 내 감정을 공감해주는 속회가 있어 가장 위로가 돼요. 형제보다 나은 속회죠.
4. 일시적 돌봄	1) 장례식에서의 돌봄	① 남편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입관예배부터 장지까지 교인들이 함께 해서 감사했어요. ② 찬양을 잔잔하게 틀어 놓고 교회에서 번갈아 오셔서 계속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신 것이 위로가 되고 축복받은 느낌이었어요. ③ 입관예배부터 하관예배까지 부목사님의 기도가 다 마음을 울렸어요. 진정성이 느껴졌고 너무 좋았어요. 처음 받아보는 위로였어요.

	2) 사별 후 지속되지 못한 돌봄	① 다른 프로그램은 많은데 사별자를 위한 것은 없어요. 혼자라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 좋겠어요. ② 너무 힘드니까 같이만 있어줘도 좋을 그런 모임이 필요하더라구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면 싶죠. ③ 가끔 남편의 얘기도 하고 싶고 아이들 얘기도 하고 싶어요. 중보기도는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냥 인사치레 같아요. 진심으로 내 얘기 들어주는 모임이 있다면 교회에서도 덜 외로울 것 같아요. ④ 장례식 후 뒷정리하는데 정말 힘들었고 지금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고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래서 난 목사님에게 기대 안해요.

이와 같이 나는 심층면담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4가지 범주들을 환대신학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다음은 4가지 범주들에 대한 분석이다.

1. 낯선 빈자리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첫 번째 범주(표2: A)는 '낯선 빈자리'이다. 낯선 빈자리란 사별 후에 교회내에서 부부가 함께 나가던 모임을 보거나 소그룹모임의 나눔 속에서 부부얘기나 남편얘기가 나올 때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은 위축이 되고 자신의 자리가 없는 것처럼 소외감을 갖게 되는 자리이다. 사별 전에는 함께 즐거웠던 자리가 사별 후에는 나와는 상관없는 낯선 빈자리가 되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만큼 그 모임은 낯설어지고 외로움과 공허함마저 든다. 외로움은 관계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으로 주위에는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되는 느낌이다.[77]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은 교회의 소그룹 모임에서 죽은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힘들고 알 수 없는 수치심마저 느껴진다. 배우자와 사별한 이들이 상황에 따라 슬픔을 절제해야 할 때도 있지만 본능적인 감정으로의 슬픔이 수치스럽거나 믿음이

[77] Anderson,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상실과 슬픔의 치유*, 68.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1) 남편의 빈자리

연구 참여자들은 배우자의 사별로 인해 교회내 소그룹 모임에서도 부정적 정서를 마주하게 된다. 특히 소그룹 모임에서 부부의 이야기를 해도 소외감을 느끼고 부부들이 함께 활동하는 모습 다정한 모습만 보아도 왠지 위축되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된다. 말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환경에 적응이 안된다고 말한다. 참여자 B는 사별전에는 너무 좋았던 부부모임이 이제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소외감으로 서운하기까지 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당황스러웠다. 참여자 C는 남편이 채워주던 것을 혼자서 온전히 채워야 하는 환경이 적응이 안되고 하루에도 열 두번씩 마음이 변한다. 선교회모임에서 부부얘기가 나오면 이제는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껴 쓸쓸하고 죽은 남편에 대해 할 이야기도 없고 힘이 들어서 그 모임에 안 나갔다. 아직도 남편을 놓지 못하고 주일 예배후가 힘들다. 참여자 D는 서로가 상처가 될 때가 많고 사회보다 못하기도 하다. 남편이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하여 얼굴이 화끈거려 그 자리를 나왔다. 참여자 F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좋은 것을 볼 때 남편이 보고 싶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남편이 웃는 것 같다. 10년만 더 살았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눈물 짓는다. 다음은 인터뷰 참가자들의 경험이다.

〈참여자 B〉

사별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나도 당황스럽게 종종 일어나요. 부부중창단 부부선교회등 그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들어가고 싶어도 거기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만 그런가요?

〈참여자 C〉

하루면 열 두번씩 슬펐다 즐거웠다 해요. 그러다 보니 말 한마디에도 슬퍼져요.

거의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환경에서든지 적응이 안돼요.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 중에 부부얘기가 나와도 힘들고 부부모습만 봐도 힘들어요. 선교회모임에서도 나는 이제 이들과 너무 다르다는 걸 느껴요. 만나서 남편 얘기 하다 보면 나는 할 얘기가 없어요.

남편이 제일 많이 입었던 반팔 티를 갖다가 옷장 정리하고 이렇게 보일 적 마다 내 서랍에다 놓고 한번씩 꺼내 얼굴을 묻고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 좀 뭔가 위로가 되더라구요. 나는 아직 남편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좋아요.

〈참여자 D〉

어느 날은 선교회 식구들이 몇 명이 앉아서 남편들 흉을 보다가 그래도 남편이 없는 것 보단 있는것이 낫지 않냐며 농담을 하며 웃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냥 나왔어요. 어느 땐 사회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 나도 말조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참여자 F〉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남편 생각이 나더라구. 우리 사위와 딸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남편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싶은 것이 눈물이 나더라구.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면 늘 생각나. 참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이었지. 교회 구석구석에서 남편이 웃고 있는 거 같아. 10년만 더 살다 갔으면 좋았을텐데.

2) 아빠의 빈자리

연구 참여자들이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는 남편의 빈자리로 인해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다. 자녀를 키우면서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거나 힘들 때 상의할 사람이 없어 슬픔을 느끼며 몸이 아플 때 배우자를 그리워하였다. 이렇듯 혼자 살면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배우자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와 닿는다. 참여자 A는 아들이 아빠가 없다고 놀림을 당할 때나 어린 아들에게 아빠가 필요할 때 마음이 아프고 아빠를 대신해 줄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참여자 B는 아들이 방황할 때 하늘이 노래지고 방향을 잃어버렸고 남편의 빈자리는 엄청난 공간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참여자

C는 아들들과 부딪히고 대화가 안될 때 함께 할 남편이 없어 힘들며 남편이 그립다. 참여자 F는 아플 때나 남편에 대한 인정의 소리를 듣고 자녀들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난다. 참여자들은 남편과 함께 할 수 없는 지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들과 마주하며 남편을 그리워하고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앨범 속 사진을 보며 보고픔을 달래기도 하고 남편이 입던 옷을 얼굴에 묻고 냄새를 맡으므로 떠나간 남편을 만나기도 한다.

〈참여자 A〉

경제적인 것도 힘들지만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들이 아빠 없는 아이라고 놀림을 당하고 친구랑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져서 아들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죠. 교회에서 친구가 아빠와 함께 있는 걸 우리 아이가 쳐다보고 있을 땐 더더욱 그렇죠.

〈참여자 B〉

아이들이 아빠가 하늘 나라 간 뒤 교회를 안 나오고 방황하는데 그땐 하늘이 노래졌어요. 둘이 였다가 남편의 빈자리는 엄청 커 보여요. 더군다나 한 집안의 기둥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했어요.

〈참여자 C〉

저는 남편밖에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끄나풀이 딱 놔지니까 진짜 몇 번을 목숨을 끊고 싶었어요. 남편 임종할 때 말했어요. "나 집 정리하고 애들 결혼시키고 십년만 살다 갈게." 했는데 그 십년이 금방 오네요. 아들들하고 부딪히고 교회서 서러울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별의 고통은 보편적인 삶의 형태나 질서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상실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별 후 갑자기 가족의 역할이 바뀌므로 바뀐 역할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배신감, 슬픔, 분노, 외로움, 우울, 억울, 회피

등의 감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으로 멈추거나 억누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감해 주고 기다려 주는 내면 깊이 공감해 주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스스로 소외되며 행복한 성도들이나 목회자에게도 원망과 적개심을 갖기도 하며 하나님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상담자라는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이들이 정상적인 애도과정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78]

그러나 이러한 애도과정을 돕기 전에 이들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무엇인가를 위로하기 위해 애써 말하기 보다는 그들이 말 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애도 과정을 통해서 사별을 수용하면서 온전한 자신으로의 삶을 살게 되고 상실로 인해 왜곡되어진 믿음을 다시 세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79]

2. 단절된 관계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두번째 범주(표2: B)는 '단절된 관계'이다. 단절된 관계란 사별 후 위로라고 해준 말로 인하여 더 큰 상처가 되어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단절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를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위로의 말이다. 이들은 사별 후 지인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으며 우리는 어떠한 말로라도 위로하려고 애쓴다. 특히 교회 공동체의 위로는 사별의 슬픔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도 주지만 사별자들의 고통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상처를 주고 있음을 이 프로젝트의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다. 몇몇 사별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반응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78] 최지영, 301.

[79] Anderson,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상실과 슬픔의 치유*, 124.

받았다고도 한다.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이들로부터의 위로는 더 따뜻하고 힘이 되기도 하나 위로라고 건네 준 말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헤집어 놓는 아픈 위로가 되어 오해가 생기고 서로를 외면하게 된다.

우리는 애도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정상적인 현상으로 함께 애도하기를 배워야 한다. 애도의 시작은 상실로 인하여 오는 불안과 고통 등을 극복하는 것이다. 애도를 충분히 함으로써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며 피할 수 없는 상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회피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매우 나약한 존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픔을 잘 견딜 수 있고 어떠한 한계 상황을 경험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80]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이 상실의 아픔을 잘 견디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는 세심하게 사별자들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1) 아픈 위로

사별 후에 유가족을 만날 때 사람들은 어떤 말이라도 위로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위로의 말이 위로로 전해지지 못하고 통증으로 남는 경우가 있다. 참여자 B는 목사님 품에 안겨 소리내서 실컷 울고 싶었으나 장례예배에서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고 부활신앙이 있다' 라는 설교에 아멘이 안 나오고 눈물을 멈춰야 했다. 참여자 C는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도 눈물이 난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 앞에 '그럼 그 고난 당신이 가져가라고 왜 하필이면 나냐구.' 소리치고 싶었다. 참여자 E는 이제 나는 혼자라는 사실을 조금씩 수용하고 있는데 단

[80] Kast, 25.

체카톡방에서 목장원들이 '부부를 위한 좋은 글'을 올리는 것조차 자신의 눈치를 보며 미안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때론 스트레스이고 더 외롭기까지 하다. 참여자 F는 남편 보내고 자신의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이 위로임을 알면서도 부끄럽고 안좋았다. 그는 믿음으로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씁쓸했다고 한다. 사별자들도 위로라는 걸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해준 위로라고 애써 이해해 보지만 그 위로가 소외감과 외로움을 갖게 하는 아픈 위로로 사별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참여자 B〉

장례예배에서 목사님이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고 부활신앙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멘이 안 나오고 눈물만 났어요. 남편 영정사진만 봐도 아들들을 봐도 그저 눈물만 나고 믿기지도 않는데 나보고 어쩌라구요. 그냥 남편이 살아 돌아오면 좋을 것만 같은데 무슨 천국 소망이냐구요.

〈참여자 C〉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장례식에 가서도 눈물이 나고 누구랑 눈만 마주쳐도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요. 그런데 나보고 고난이 축복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거라고 하는데 화가 나서 '그럼 그 고난 권사님이 가져가라'고 소리치고 싶더라구요. 남편이 죽은 후 장례식장에 꼭 조문을 가요.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한번 안아주고 오면 내가 좋아요. 내가 받고 싶은 위로였나 봐요.

〈참여자 E〉

우리 속회 단톡방에다가 한 권사님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란 좋은 글을 올려 놓고서 아차 하신거야. 혼자인 내가 있거든. 그 글은 내가 읽어도 참 좋은 글이라서 좋았는데 금방 권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톡을 했어요. 나는 의식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불편해요. 그럴 때 좀 외롭고 헛헛해요.

〈참여자 F〉

남편이 가셨어도 얼굴은 좋아 보여 좋다고 하는데 부끄럽더라고. 그냥 들어서 넘겼어. 그런데 맘이 안 좋더라고. 그렇지만 뭐 교회에서 들으면 긍정적으로 넘겨야지. 위로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도 내가 듣기에는 그렇더라고요.

2) 교회를 떠남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아픔을 공감하고 수용해준다는 것과 아픔속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 하는 일이란 쉽지 않다. 위로 받고자 하는 이들이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렵고도 조심스러울 것이다. 위로 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위로한다고 하는 위로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들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것이 오해가 되기도 한다. 참으로 위로라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어렵게 위로하고 사별자들은 그런 위로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참여자 B는 위로 여행중 남편 없는 자신을 위해 여행을 떠나준다는 말과 이제 자유롭게 남자친구도 사귀라는 말이 자신을 얕보는 것 같았으며 사별 후 목사님 또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아무도 모르는 교회로 옮겨 사귐을 중단하고 예배만 드린다. 참여자 D는 사별 후 목사님에게 서운한 것이 많아지고 자신을 과부로 바라보는 교인들의 시선이 따갑고 교회가 낯설어져서 교회를 옮겼다.

〈참여자 B〉

여선교회에서 제주도를 가는데 자기들은 남편이 있어 언제든지 갈수 있지만 권사님 때문에 간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오고 싶었어요. 믿는 사람이 울고 다니는 것도 안좋으니 그만 울고 자유롭게 남자 친구도 사귀어 보라면서 혼자가 좋을 때도 있지 않냐고 웃는데 나를 얕보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도 사별 후엔 저를 더 불편해하고 신경도 안 쓰시더라구요. 모든게 부담스럽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교회를 옮겼어요.

〈참여자 D〉

수요예배 드리고 함께 나눔을 하는데 어쩌다가 벌써 과부가 되었냐고 하는데 뒤통수가 너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걱정이래요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죠. 장례 후 한번도 연락이 없는 목사님에게도 서운한 것이 많고 여러가지로 힘들어서 아예 이사도 하고 교회도 옮겼어요.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나온 공통적인 경험 중 '더 울어라 실컷 울어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 울지 말라 그만 울라.'라고 하였다. 나 또한 엄마가 돌아가시고 들었던 말이 '어린애도 아니고 애 엄마가 뭐 그렇게 우느냐'였다. 이렇게 감정을 그대로 멈추게 하는 것이 한국의 사별자들에 대한 위로의 한 방법이 아니었나 새삼 생각하게 된다. 특히 한국정서에서는 슬픔을 표현하기 보다는 참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면서 울기보다는 빨리빨리 슬픔을 털고 일어나라고 재촉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은 억누르게 되고 절제하게 되며 충분한 애도의 과정이란 생각지도 못하고 마련해 주지도 않는다. 그 결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온 사별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별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신앙공동체는 위로의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위로의 방법을 모르고 사별자들의 감정을 우리의 잣대로 좌지우지할 때가 많다. 특히 목회자들의 성경구절을 인용한 사별자에 대한 위로는 더욱 더 조심스럽다. 가끔 목회자들의 위로가 사별자의 상황과 그 마음을 잘못 이해함으로 그들에게 별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81] 그러므로 목회자나 평신도 사역자들은 죽음이 인간에게 주는 상실과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상실의 고통 중에 있는 사별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3. 부분적 치유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세 번째 범주(표2: C)는 '부분적 치유'이다. 부분적 치유란 배우자와 사별 후 상실의 아픔에서 전인적 치유가 되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만 치유된 경우를 말한다. 사별로 인한 상실은 홀로 남겨진 삶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으

[81] 윤득형, "애도상담의 기본 원리와 목회적 접근," *신학과 실천* vol. 58 (February 2018): 419.

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게 된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나님께만 더 의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한된 사람에게 의존하기도 한다. 사별자들은 그렇게라도 변화된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참여자들은 무엇을 의존하면서 어디에서 위로 받고 힘을 얻는지 그들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1) 하나님에 대한 의존

내 경우 가장 힘들 때 찾는 것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간다. 배우자와 사별한 기독교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다. 참여자 B는 두렵게 있지 말고 나랑 함께 하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묵묵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으나 사나 주님을 신랑삼아 살고 있다. 참여자 C는 시험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였으며 하나님을 믿고 예배 그 자체가 힘이 되었다.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자신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이다. 참여자 E는 사별 후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서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한다. 이들은 대부분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에게 의존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참여자 B〉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위로는 "삭개오야 내려와 왜 올라가서 그렇게 위태롭게 있어? 내려오면 편한데 왜 나무에서 그냥 그렇게 두렵게 있어 내려와서 나와 함께하자" 그러셨는데 마치 주님이 나를 안고 있는 것 같아 한참 울었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그냥 묵묵히 지켜보시니까 그때부터 죽으나 사나 주님을 신랑삼고 살아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돼요.

〈참여자 C〉

하나님을 믿는 것. 예배 그 자체가 힘이죠.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나고 신앙 생활을 안했으면 내 삶이 엉망진창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지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 언정 난 하나님뿐이예요. 절대로 사람들 하고는 말 안해요.

〈참여자 E〉

목사님께 너무 많은 걸 기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남편 죽고 일 처리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이겨내게 하셔서 지금은 마음도 편해요. 당연히 하나님하고 더 밀착이 될 수 밖에. 나는 24시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요.

2) 사람에 대한 의존

배우자와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에게 있어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사람들에게도 실망을 할 때 그들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는 이 세상에 오직 내 편인 것 같은 사람 한명만 있어도 살 맛이 난다고 한다. 그들만 있으면 외롭지 않고 살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하고 있다. 참여자 A가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는 눈치 볼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봐주는 여선교회 때문이다. 힘든 시간들을 함께 하며 위로 받고 견딜 수 있었다. 참여자 D는 아무 말없이 손잡아주고 다 잘한다고 응원해 주는 또래 목장식구가 있어 행복하다. 참여자 E는 가장 힘들었을 때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시도 때도 없이 요동치는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준 속회가 있어 위로가 되었다.

〈참여자 A〉

교회에서 같은 또래 여선교회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죠. 특히 아이문제요. 진정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일처럼 고민해주죠. 있는 그대로 날 봐 주니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내가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죠.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위로 받으며 견뎌 온 것 같아요.

〈참여자 D〉

옮긴 교회에서는 내 동갑내기 집사님들이 안타까워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내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데 따뜻했어요. 같이 밥 먹어 주는 것이 너무 고맙더라구요. 지금은 내형편을 아무것도 안묻고 내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또래 목장 식구들이 있어 위로가 돼요. 무슨 짓을 해도 다 잘한다고 응원해 줘서 따뜻했어요.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해요.

〈참여자 E〉

주일예배 목사님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내 믿음이 그걸로 자라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목사님에겐 기대 안해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을 때 내편 되어 주고 시도 때도 없이 요동치는 내 감정을 공감해주는 속회가 있어 가장 위로가 돼요.

이들은 자신을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대상이 소그룹 모임이었다. 그곳에서 자신을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사람이라는 한 부분에 의존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같은 위로라 할지라도 위로를 받는 사람에 따라 아플 수도 따뜻할 수도 있다. 결국 따뜻한 위로란 우리가 주고 싶은 위로가 아니라 그들이 받고 싶은 위로라고 하겠다. 상대의 눈높이에서 바라봐 주고 그대로 안아주는 것 즉 '연민적 시선'으로 '예수의 시선'이 되어주는 것이 선물로의 위로일 것이다.

4. 일시적 돌봄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네 번째 범주(표2: D)는 '일시적 돌봄'이다. 일시적 돌봄이란 임종 후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서 장례예배 등 일시적으로 받은 돌봄이다. 늘 함께 해 왔던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는 현실이 사별자들은 혼란스럽고 두렵고 불안하다고 연구 참가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자꾸만 위축되는 자신들을 보며 때때로 남편을 따라 죽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도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함께 해온 교회는 지금부터 어떻게 그들을 도

울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환대의 사역을 가장 잘 실천하였던 예수의 사역을 배우고 본받아야 하겠다.

예수께서 나무위에 있는 삭개오의 얼굴을 바라보고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는 예수의 '바라봄'의 환대가 비존재 같았던 삭개오를 존재론적 영역으로 전이시켜 주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삭개오가 예수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삭개오의 집에 '스스로 초대'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자신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던 삭개오에게 비로서 자기 삶의 '긍정과 변혁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예수의 스스로 초대는 '주인'과 '손님'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따스한 '환대적 긍정'만이 남았다. 이것이 바로 환대 신학의 핵심이며 신앙공동체가 배워야하는 환대의 사역이라 하겠다.[82]

따라서 예수의 '바라봄'의 환대가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에게도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는 사별자들의 상실의 고통속으로 '스스로 초대'해 들어 감으로써 사별 전 '존재'였던 삶에서 사별 후 '존재하는 비존재(non-being)'가 된 사별자의 삶을 존재의 영역으로 전이시키는 목회적 돌봄이야 말로 환대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장례식에서의 돌봄

참여자들 대부분은 3일의 장례식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혼이 나간 상태라고 한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오직 장례를 잘 치르고 손님을 잘 접대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런 장례식 상황에서 신앙공동체의 진정한 돌봄은 이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 A는 가족도 없고 정신도 없는 상황에서 방문예배부터 납골당 장지예배까지 함께 해준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았음을 고백한다. 참여자 B는 교회가 정해지지 않은

[82]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245.

상황에서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끊이지 않고 와서 예배와 기도를 드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다. 참여자 E는 장례식 동안 드려진 여러 번의 예배에서 부목사님의 기도가 진정성이 있고 울림이 있어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받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참여자 A〉

교회가 많이 위로가 됐죠. 남편도 가족이 없고 부모님 형제도 없고 그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입관예배부터 장지까지 가는데 교인들이 많이 와 주셔서 되게 많이 힘이 됐죠. 교회 납골당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례문화가 참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B〉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고 예배 드려 주어서 힘이 많이 되었어요.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일단은 믿고 보낸 상황에서 힘듦과 축복받았다는 감사함이 교차하더라구요. 그렇게 내 교회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삼우제까지 예배 드려 주시고 그런 위로의 예배가 없었다면 아마 나는 죽었을 것 같아요.

〈참여자 E〉

부목사님이 예배를 드려 주셨는데 임종예배부터 납골당에 가서 마지막 예배까지 목사님의 기도가 진정성이 느껴져 마음을 울렸어요. 많은 애경사 때 목사님들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의례적인 그런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은 기도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것처럼 너무 좋았어요.

2) 사별 후 지속되지 못한 돌봄

상실과 슬픔의 문제는 실제 목회 현장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인간의 고통 중 하나이다. 고통 중에서도 사별로 인한 상실의 고통의 깊이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연구 참여자들은 말한다. 사별자들은 남편의 죽음이 꿈이길 간절히 바라기도 하지만 ‘남편이 죽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별의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예상하고 있다 해도 사별자들은 항상 내게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배우자의 죽음을 수용하기 보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상실의 의미를 과소평가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는 현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교회 공동체는 애도의 시간을 함께 해 주는 환대적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연구 참여자들이 다니는 교회에는 사별자들을 위한 특별한 돌봄은 없었다. 참여자 A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교회에 있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한 사별한 사람들 중 재혼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좋겠다고 하였다. 참가자 B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같이만 있어줘도 좋을 모임을 원하면서 너무 힘들 땐 전문 상담사를 안내해 주는 역할도 교회가 감당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참여자 C는 사별자 모임이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여자 E는 사별 후 사무처리의 어려움을 교회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고 작은 관심과 사별자 위로 예배가 있어도 좋겠다고 한다.

〈참여자 A〉

사별 후에 교회에서 특별한 돌봄은 없어요. 나는 아이문제가 가장 컸어요. 아이는 커가고 사춘기가 오면서 반항하는데 이럴 때 교회에 아빠 같은 맨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맘이 간절했어요. 엄마자리는 한계가 있고 생활전선에 있다 보니 여유가 없어요. 교회에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프로그램이 있음 좋겠어요.

사별한 사람들 중 재혼을 원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이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애가 어릴 때 행복한 가정을 아이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만 있어도 좋겠죠.

〈참여자 B〉

애들이 방황했을 때 힘들었어요. 누가 형처럼 전화라도 해주고 밥이라도 한번 먹고 어디라도 데리고도 가주고 말씀도 전해주면 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너무

허전하고 극도로 우울해지는데 교회는 더 낯설어지고 내 교회 같지가 않아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면 싶어요. 또 저처럼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면 상담실도 안내해 주고. 그런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요.

〈참여자 C〉

교회에서 전문적인 상담은 어렵겠지만 같이 교제하면서 식사나 차라도 나누고 힘든 일 공감해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음 좋겠어요. 가끔 남편의 얘기도 하고 싶고 아이들 얘기도 하고 싶은데 진심으로 내 얘기 들어주는 모임이 있다면 교회에서도 덜 외로울 것 같아요. 사별자 모임 같은 것이 있음 좋겠어요.

〈참여자 E〉

애 아빠가 세상 떠나고 나서 1년 동안 무료 법률센터, 세무서 등 뛰어다니기 바빴어요. 그 뒷정리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구. 지금도 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지. 이럴 때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냐고 아무도 안물어봐요. 눈이라도 마주치면 '잘 지내시죠? 건강하세요?' 그런 관심이라도 있음 좋겠어요. 사별자 위로 예배가 있으면 좋지요.

사별자에게 목회적 돌봄이 가장 필요한 때가 장례식에서의 일시적 돌봄도 중요하지만 사별 이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함을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사별 이후 사별자들이 목회자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별로 느끼지 못했고, 목회자의 돌봄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이유는 사별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역할 그리고 사별자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사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체계적인 죽음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좀더 구체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돌봄 사역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사별 이후 목회자의 돌봄과 사랑 그리고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장례식에서의 일시적 돌봄만으로 만족한다면 목회자는 영적 리더로서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신 궁극적인

이유이며 목적이기 때문이다.[83]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의 애도과정에 있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신앙 공동체의 안아주기 환경으로의 섬김 이야말로 환대의 돌봄이 될 것이다. 이런 환대의 돌봄을 통해 사별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고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할 것이다. 부활신앙은 사별로 인한 슬픔을 겪는 사별자들을 돌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며, 교회 공동체는 부활의 동조적 가치 정향을 지닌 집단인 것이다.[84] 그러나 비록 부활신앙이 사별자들을 돌보는 강력한 도구라 할지라도 섣부른 부활 신앙이란 위로는 사별자에게 또다른 상처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별자로 하여금 배우자 사별 후 받고 싶은 도움이 무엇인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에게 다양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교회는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없다는 일종의 체념도 참여자들에게 발견되었다.

돌봄이란 결국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그대로 껴안아주고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나의 공간에 그들을 초대하고 그의 공간에 머물면서 그들의 아픔과 필요를 알아봐 주는 것이야 말로 무조건적인 환대로서의 돌봄이 될 것이다. 이제 교회 공동체는 환대의 공간이 되어 이러한 사별자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교회 안에서 소외되어지고 있는 사별자들을 위한 예배와 교제의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러한 환대의 돌봄에 앞서 우리는 사별자를 위한 애도과정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윌리암 워든(William Worden)은 사별자가 사별 후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완수해야 할 애도과업으로 첫 번째는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별 슬픔의 고통 속에서

[83] 이창규, 321.
[84] 최지영, 316.

애도 작업을 해내는 것이며 세 번째는 고인이 없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네 번째는 고인에 대한 감정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더불어 삶을 살아나가는 일이라고 하였다.[85] 이렇게 사별자들이 애도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들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그 과정을 함께 도와줄 손길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이 경험한 상실에 대해 느껴지는 고통과 깊이는 다 다르며 사별자들은 때때로 고통스러운 생각들을 회피하고 감정을 차단하여 고통을 외면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사별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다양한 감정들을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존 보울비(John Bowlby)는 빠르거나 늦거나 상관없이 의식적으로던 무의식적이던 사별 슬픔을 회피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대개 우울증의 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86] 실제로 연구 참여자중 남편과 사별한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고백처럼 사별자들이 계속 고통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신앙공동체의 지속적 관심과 돌봄은 필요하다.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은 그동안 부부가 함께 했던 익숙함에서 사별로 인한 낯선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배우자가 수행해 오던 역할들을 사별 후엔 사별자들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아빠 없이 아이를 엄마 혼자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상황이 당황스럽고 막막하기도 하다. 남편이 있었다면 절대 겪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자신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남편의 빈자리를 수용해야 한다. 남편의 빈자리를 수용하더라도 사별자들은 사별로 인하여 자아존재감이 열등감으로 변하고 개인적인 유능감은 도전을 받기도 하면서 자아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

---

[85] J. William Worden,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유족의 사별슬픔 상담과 치료*, trans. 이범수 (서울: 도서출판 해조음, 2010), 56-74.

[86] Worden, 64.

사별은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린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기도 하기에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을 위한 애도의 최종 목표 중 하나는 자신을 하나의 ‘온전한 나’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의 아내라는 자리에서 나와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자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까지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특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이들에겐 돌이 되어 가슴에 멍이 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한다.

사별로 인한 상실은 인생의 가치와 믿음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사별자들은 상실이 주는 의미에 대하여 질문하며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사별은 고인에 대한 모든 것을 버리고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추억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을 확보하여 애도하므로써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도는 단기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과정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애도는 사별자들의 슬픔과 고통, 분노의 감정에 공감해주면서 그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사별 후 경험하게 될 슬픔의 과정과 단계를 알려 주고 애도과정을 함께 함으로써 사별자는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한 애도과정을 거치면서 배우자와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은 기독교적인 죽음의 의미를 통찰하고 죽음 너머의 부활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87]

E. 논의: 사별 여성들을 위한 환대

환대에 대해 크리스틴 포올(Christine D. Pohl)은 환대는 기독교인들에게 선택 사항이 아니고 그것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사항도 아니며 환대는 신앙의 공동체에

[87] 최지영, 317.

서 필수적인 실천 사항이라고 하였다.[88] 그리고 강남순은 진정한 환대란 주인과 손님의 경계를 홀연히 넘어서는 것으로 그 환대를 통하여 전적인 '삶의 긍정'의 경험이 일어나는 '삶-긍정의 사건'이라고 하였다.[89] 다시 말해 진정한 환대란 삭개오에게 있어 예수의 스스로 초대한 방문 환대로 인하여 삭개오의 삶에 긍정의 경험이 일어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환대가 신앙공동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실천 사항이라면 교회는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을 환대적 돌봄을 통하여 '삶의 긍정'의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대의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한다.

사별자를 환대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을 통해 드러난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네 가지 범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은 사별로 인한 낯선 경험들을 하고 있었으며 남편과 함께 했던 자리는 낯선 빈자리가 되어 소외와 그리움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 교회에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위로를 동시에 받아내며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위로가 상처가 되어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였다. 셋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하나님에게 더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목회자에 대한 상처는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부분적 치유를 경험하고 있었다. 넷째, 장례식에서 받은 교회 공동체의 돌봄과 위로에 감사하고 있었지만 장례식 이후에는 지속적인 목회적 돌봄이 없이 장례식에서의 일시적 돌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심층면담의 결과 연구 참여자인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은 교회 공동체에 깊이 소속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환대받지 못한다는 생각과 사별전과 달리 자신들의 자리를 잡지 못하는 주변인으로 역할이 바뀌는 현실에 체념의 감정까지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진정한 환대를 통하여 사별 후의 낯선 빈자리를 수용하고 깨진 관

---

88 Chrisine D. Pohl,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9), 31, quoted in Russell, 24.

89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92.

계가 회복되며 의존이 아닌 전인적 치유가 되어 온전한 자신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속적 돌봄으로의 환대를 논하고자 한다.

1. 낯선 빈자리에서 수용으로의 환대

사별자들이 느끼는 배우자가 없는 낯선 빈자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 환대이다. 우리의 섣부른 환대가 그들을 더 큰 상처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사별자들이 진정한 환대를 받았을 때에 그들은 사별의 아픔에서 조금씩 벗어나 현실을 직면함으로 더 이상 불안과 고통 속에 머물지 않고 서서히 일어설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낯선 빈자리에 있는 사별자들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변화하고 성장해 간다. 그 변화 방식 중 하나는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현실을 수용해 가는 것이다.[90] 이렇게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은 자신을 사별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느낀다.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환대를 받아야 할 '게르'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며 더 이상 부부가 아닌 온전한 자신을 수용하고 새로운 정체감을 세워 나가야 한다. 수용은 우리의 경험을 판단이나 선호없이 지금 여기를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며 우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온 몸으로 수용함으로써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리게 할 수 있다.[91] 또 다른 수용은 상실의 경험을 회피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생각과 감

[90] Lawrence G. Calhoun and Richard G. Tedeschi,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ractice 외상 후 성장*, trans. 강영신 (서울: 학지사, 2015), 29.

[91] Ronald D. Siegel and Christopher K. Germer, *Mindfulness and Psychotherapy 마음챙김과 심리치료*, trans. 김재성 (서울: 무우수, 2009), 205-6.

정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92] 그러나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에게 사별의 경험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워 회피할 수도 있기에 이들이 배우자가 없는 낯선 빈자리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환대의 공간이 되어주는 것이 신앙공동체의 역할이라 하겠다.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내가 거주하는 나의 공간에 환대를 통하여 낯선 타자를 맞아들이는 것이 바로 타자 윤리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거주'의 개념을 '자기를 추스르고 휴식을 취하며 불안정을 유예하고 향유를 예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93] 나의 거주 공간이 마치 낯선 이의 거주 공간이 되어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추스르는 환대에 대한 본질을 통합해보면 타인을 나의 공간 속으로 초대하여 그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자유롭고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 공간 안에서 그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환대는 손님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타자에게 공간이 되어 주고 타자의 현존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며 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94] 또한 환대는 어떤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행동이기보다 타인을 향하여 들어주고 서로 배우며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삶의 한 방식으로 그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인 것이다.[95]

신앙공동체는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의 필요만을 채워 주는 환대가 아니라 존귀한 가치를 인정해 주고 낯선 빈자리를 잘 수용하여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상실이란 고통과 직면하여 이겨내고 있는 그들로부터 삶을 배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별

---

[92] 문현미, "심리적 수용 촉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수용-전념 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PhD diss.,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6), 195.

[93]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40-1.

[94] 강영안, 41.

[95] Amy G. Oden, *And You Welcomed M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14, quoted in 손성수, "특집: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기독교대학에서의 환대의 적용 연구," *대학과 선교* vol. 11 (December 2006): 97.

이라는 아픔의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이를 알아차려 주고 수용할 수 있도록 환대의 돌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환대의 실천은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인류를 자신과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신 일'이 원동력이 되었다. 이것은 두 팔 벌리신 아버지(성서의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포옹을 통한 포용의 윤리'에서 확인되었으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이 타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다.[96]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이 남편이 없는 낯선 빈자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환대의 돌봄을 위한 환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2. 단절된 관계에서 관계 회복으로의 환대

사별자들이 느끼는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게 돕는 것이 환대이다. 사별자들이 상실의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사람, 특히 그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로 할 때 계속적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이 변해 있는 사별자들의 심신은 지쳐 있고 예민해 있기에 말 한마디나 작은 눈빛 하나도 다 조심스럽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위로가 따스한 위로가 되지못하고 아픈 위로로 변하여 관계가 단절될 수 있기에 너무 앞서가거나 빠른 위로를 멈춰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하는 과정에서 위로자가 상처를 받아 사별자의 고통에 무심하거나 외면하는 경우도 생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구성원도 소외당하거나 주변부로 밀려 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실의 아픔속에 있는 사별자들은 사별이란 현실을 수용하고 정체성을 찾기까지는 환대의 대상인 낯선 자이기에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을 배려하고 불편함이 무엇인지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을 환대의 정신으로 안아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혼자 살아 갈

[96] 최병학 and 오정대, 213.

수 없기에 신앙공동체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안에서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분명한 거처를 두고 공동체에서 권리를 갖지 않으면 함께 살아 갈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적 삶이 무의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앙공동체의 안아 주기 환경은 예수의 환대 즉 '자기 내어 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사별자들의 상처가 치유되면 그들은 우리와 대등한 위치에서 안아 주기 환경에 함께 할 수 있으며 서로를 따뜻하게 포용하게 될 것이다. 볼프(Miroslav Volf)는 대등한 사람들이 서로를 포용하는 것은 서로가 인정받으려는 경쟁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인정을 이미 전제하는 자기 내어 줌의 결과라고 하였다.[97] 이러한 자기 내어 줌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모범으로 삼는다. "십자가 위 그리스도의 벌린 두 팔은, 하나님이 타자-인류-가 없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며 인류를 끌어안기 위해 인류의 폭력을 당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이다."[98] 그렇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 인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심으로써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안전한 공간안에서 살아가도록 '자기 내어 줌'의 환대를 받았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대를 갖고 환대가 필요한 상처입은 이들을 자기 내어 줌의 환대로 끌어안아야 한다.

인간은 관계속에서 특히 공동체에서 숱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인간은연약한 존재이기에 상처에 자유로울 수 없고 상처는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처의 흔적을 지우거나 외면할 수가 없으며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특권이며 인

---

97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배제와 포용,* trans, 박세혁 (서울: IVP, 2012), 231.
98 Volf, 243.

간 존재의 관계성인 것이다.[99] 따라서 이세상을 사는 동안 타자가 없는 나는 있을 수 없다. 결국 환대의 대상인 타자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와준 낯선 자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선물로 와준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을 교회 공동체가 환대의 공간이 되어 기꺼이 안아줄 때 이제는 충분히 고통을 견뎌 낼 수 있으며 자신의 중요한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공동체안에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영성이 더욱 깊어져 자신처럼 어려움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적 시선을 갖고 환대의 공간이 되어 준다.

따라서 새로운 삶에 더 감사하게 되고 사별 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며 종교적·영적·실존적 요소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100]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안에 있는 자녀로서 똑같은 존재가치가 있으며 서로가 존중되는 공간이어야 한다.[101] 교회 공동체란 환대의 공간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에게 울타리를 둘러 준다.

3. 부분적 회복에서 전인적 회복으로의 환대

부분적 회복에서 전인적 회복으로의 환대란 사별자들이 느끼는 부분적 회복에서 전인적 회복이 되기 위한 환대이다. 상실속에서 사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왜? 하필?'이란 매우 고통스러운 질문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기에 상실의 고통 가운데서 함께 고통받으신다는 생각으로 위

---

99 E. Levinas, *En découvrant l'existence avec Husserl et Heidegger* (Paris: J. Vrin, 1982), 197–202, quoted in 최병학 and 오정대, 219.

100 Calhoun and Tedeschi, 38.

101 Kathy Black, *A Healing Homiletic: Preaching and Disability 치유 설교학: 설교와 장애,* trans. 이승진 (서울: CLC, 2008), 54.

로를 받는다.[102]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신랑삼아 산다.'라는 연구 참여자의 고백처럼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불신은 더욱더 하나님과 밀착되기도 한다. 부분적 치유는 또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에 전인적 치유를 위해서는 애도과정이 꼭 필요할 것이다.

사별자들은 사별 후 삶의 변화로 인간 관계가 깨지고 언제 또 그런 불행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속에서 삶의 의미와 존재의 불확실성과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물음과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용감하게 살아가는 것도 애도의 일부이다.[103]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애도과정을 거쳐 사별의 현실을 수용하게 되지만 사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별 후 혼자라는 삶의 변화는 사별 전 보다 불건강해질 수도 있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 고난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다. 상실의 아픔속에 있는 사별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미성숙한 신앙인은 감정을 회피하거나 관계를 차단하므로 소외되고 고통속에 있기도 한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감정을 잘 직면하고 상실의 아픔을 잘 극복하면서 신앙이 더 깊어진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처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경험으로 잘 돕기도 한다. 따라서 목회적 돌봄에 있어 건강한 신앙의 양육은 매우 중요하다.[104]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사별자들은 변해버린 세계와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만의 성에 갇혀 점점 외로움에 빠지거나 소그룹안에서 소외를 극복하려고 무던히 애쓰기도 한다.[105] 그렇다면 신앙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별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

---

[102] Anderson,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상실과 슬픔의 치유*, 157.

[103] Kast, 22–3.

[104] 최재락, "슬픔의 치유를 위한 기독교상담," *한국실천신학회* no. 23 (May 2010): 309–10.

[105] Margaret Zipse Kornfeld, *Cultivating Wholeness 공동체 돌봄과 상담*, trans. 정은심 and 최장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96.

도록 도울 것인가?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원으로 그리고 있다:

> '나-너'의 관계가 생성될 때-구원이라는 관계적 삶 안에서 시간적으로 연결되고 신적 중심에 의하여 하나가 된 공동체에서 공간적으로 연결될 때 그리고 그 관계가 그렇게 존속될 때, 비로소 보편적인 것의 영원성(aeon)에서 정신을 이해하는 범위와 형태를 가진 인간의 우주, 즉 그 우주 안에서 인간이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집과 가정이 되는 세계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제단의 주변에서 생성된다.[106]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에게 전인적 치유는 중요한 과제이다.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 된 신앙공동체 또한 전인적 치유를 추구하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공동체가 환대의 공간으로써 사별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너'가 되는 것을 통해 '나'를 아는 것을 배울 것이다. 궁극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므로 사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전인적 치유를 위한 신앙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하다.

사별자들의 전인적 치유를 위한 환대에 있어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성급한 위로가 아니다. 불편한 상황속에서도 그들이 자신의 전인성을 알아차리도록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즉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전히 불편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많이 할 때 낯선 이를 수용하는 것이 쉬워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습과도 같다."[107] 이렇듯 신앙공동체에서 함께 고통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환대의 경험은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을 전인적 치유로 이끈다.

---

[106] Kornfeld, 96.
[107] Kornfeld, 97-9.

4. 일시적 돌봄에서 지속적 돌봄으로의 환대

사별자들이 아쉽게 느끼는 일시적 돌봄에서 지속적 돌봄을 하는 것이 환대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기 위해 어떻게 환대를 해야 할 것인가? 교회는 관계성 안에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기에 조건적 한계와 제한들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어떻게 환대를 실천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사별자들에게 있어 회복력의 중대한 원천은 사회적 지지이다.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지지와 함께 묻어 둔 고통을 꺼내 다시 경험할 때 사별로 인한 상실은 충분히 애도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할 때 사별자들은 자신의 자아의 일부와 결합되고 안전한 공간에서의 지지로 공동체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신앙공동체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108] 사별자를 위한 애도의 과정은 단순한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돌봄이 중요하다. 신앙공동체의 수용과 긍정적 지지가 있는 지속적 돌봄은 사별자들에게 힘을 주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며 그곳은 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환대의 공간이 된다.[109]

다시 말해서 신앙공동체는 예수가 실천한 자기 내어 줌의 환대를 본받아 사별 후 낯선 자가 되어 있는 사별자들을 환대하므로 교회 공동체는 환대의 삶이 실현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110]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환대를 베푼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줌'을 통해 지속적인 환대를 실천해야 한다. 또한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 줌'이란 무조건적 환대를 배푼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내어 줌의 환대가 실현되어야 한다. 내 소유를

---

[108] Kornfeld, 192.

[109] Kornfeld, 193.

[110] Christine D. Pohl, "Hospitality, A Practice and a Way of Life," *Vision: A Journal For Church and Theology* (Spring 2002): 38, quoted in 김성호,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다문화 사회복지의 과제: 평등을 지향하는 공정한 환대의 실천," *기독교사회윤리* vol. 36 (December 2016): 65.

내놓지 않고 내 몸의 고통이 없는 '줌'은 불가능하다고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말하고 있다.[111] 우리 모두는 상황에 따라 서로에게 이방인이요 낯선 자이다. 따라서 사별자들이 소외의 경험으로 인해 낯선 자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목회적 돌봄이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신앙공동체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환대적 돌봄이 있는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런 관계속에서 신앙공동체는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환대로 인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환대적 신앙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환대적 신앙공동체는 무엇인가에 대해 다음 장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111] 강정희, "환대의 윤리 관점에서 본 이주노동자 정책과 한국 교회의 과제," *신학과 사회* vol. 32, no. 2 (May 2018): 104.

Chapter IV
환대적 신앙공동체

A. 교회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 따라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 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개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교회의 한 지체로 소속되어 존재한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깊이 있게 참여하며 교회의 한 일원으로써 몸으로 참여하는 것이다.[112]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ἐκ κ λ ε σ ί α)'라고 하며 모인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에크(ἐκ , ἐ ξ) ~로부터와 칼레오(κ α λ ἐ ω) 부르다'에서 유래되었으며 불러낸 자들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113]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불러 내었다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모이는데 '교회'를 다른 말로 예배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함께 친교를 나누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 제2절은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 공적인 신앙고백을 통해 성도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호 간의 덕을 세우기 위해 신령한 봉사를 하며, 또한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간에 물질적인 짐들을 덜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114]

바울은 교회를 언급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9에 나타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을

[112] 손재익, *특강 예배모범* (서울: 흑곰북스, 2018), 19.
[113] 이병철, *성서원어대전* (서울: 브니엘, 1985), 226.
[114] 손재익, *19.*

언급하였다.[115] 또한 바울은 교회를 그들의 친밀한 관계로 묘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들인 '형제', '아버지', '어머니' 또는 '기르다'라는 용어들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히 이름뿐만 아니라 참되고 친밀한 가족적인 인간관계를 묘사하는 용어들이다. 이러한 관계의 전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 부자관계를 형성케 된 것이다."(롬 5:5, 25:30, 개역개정)

이와 같이 교회는 가족적인 성격을 지닌 공동체이므로 성도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이다. '교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는 '동업자, 제휴자, 동료, 친구, 배우자, 분배자'라는 뜻을 가진 '코이노노스'(κοινωνός)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코이노니아는 '동료의식, 교제, 사귐, 공동체, 공유, 참여, 사귐, 상호교류, 우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영적 교통을 기초로 하는 나눔이며 구체적인 실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116]

미니어(Paul S. Minear)는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이미지 4가지 중에서 '신앙적 교제'라는 개념이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네 가지 교회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 '새 피조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신앙적 교제'라고 하였다.[11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 개역개정)의 그리스도의 몸(σώμα)이라는 표현은 신자 개개인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집단적인 의미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연합을 뜻하는 공동체

---

[115]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53.
[116] 서창원, *깨어있는 예수의 공동체* (서울: 진리의 깃발, 1999), 48-55.
[117] 은준관, 298.

로서의 교회를 나타나는 말이다.[118] 바울은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고전 12:26) 라고 하며 다른 지체들도 한 지체의 희로애락과 함께 경험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서로를 확인하고 동일시하는 지체들의 상호관계인 것이다.[119]

존 코닉(Jone Koenig)은 이러한 신앙공동체의 친밀한 관계를 환대로 정의하고 이러한 환대 신학적인 신앙공동체가 신약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밝힌다. 실제로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다양한 부류, 모든 조건의 사람들이 예수의 영접을 받고 제자 공동체가 되었다.[120] 그리고 기독교인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 개역개정)고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에게 환대받는 것이 기독교인의 유산이며 희망이었다.[121] 그러므로 신앙공동체는 목회시스템 안에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 섬김의 사역으로써 환대의 실천이 이루어 져야 한다. 영적 공동체 내에서의 환대는 치유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교회 공동체는 치유가 확산되는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한다.[122] 이러한 제자 공동체의 모범을 따랐던 초대교회는 환대 신학적 공동체로 세워졌다. 존 코닉(Jone Koenig)은 환영받는 피난처로의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1 세기의 사회속에서 많이 늘어난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 남자의 도움없이 살아가는 유대인 여자들과 어느 정도 확실한 부를 가지고 있지만 경력상(소외된) 해방된 노예들은 제국의 귀족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지만 '기독교인 집단의 친밀함'은 하나의 잔인한 세계로부터의 '환영받는 피난처' (welcome refuge)로서 인식되어 왔다.[123]

---

118 서창원, 57-8.

119 서창원, 60-1.

120 Koenig, 61-2.

121 Koenig, 5.

122 Koenig, 9.

123 Wayne A. Meeks, *The First Urban Christians: The Social World of the Apostle Paul* (New Haven, Conn, Yale Univ Presss, 1983), 191, quoted in Koenig, 108.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가? 소외되고 낯선 타자에게 교회 공동체는 얼마만큼 '환영받는 피난처'의 공간이 되고 있는가? 나에게 물음을 던져 본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 예수의 섬김의 정신을 이어받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나그네를 환대하는 공동체적 삶을 살았다. 자신의 공간이 없는 나그네의 삶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가 잠시 머물면서 환대를 받고 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124] 나그네에게 환대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초대교회와 같이 현재의 교회도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이 사별 후 고단함과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고 있는 나그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이들에게 환대의 공간이 되어주어야 함은 마땅하다.

성경에 나타난 환대는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개인 윤리적인 행위를 넘어 교회 공동체의 사회 윤리적 성격을 가진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가 행한 환대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별자의 슬픔에 동참하고 함께 고통 하는 환대를 실천해 가야 한다. 허버트 앤더슨(Herbert Anderson)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기꺼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인식하고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따르는 자는 곧 슬픔을 견뎌내는 자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죽음을 부인하기로 결정한 세상과 그리고 상실과 슬픔을 감추고 슬퍼하는 사람을 모른 체하거나 억압하는 세상에서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125]

우리는 서로 고통을 나눔으로써 슬픔과 외로움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서로의 슬픔을 종결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감각과 따돌림을 초월하는 일이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신다는 확신이 모든 다

---

[124] 손운산, 270.

[125] Anderson,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상실과 슬픔의 치유*, 193-4.

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하여 생기는 슬픔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설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된다.[126] 캐시 블랙(Kathy Black)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어떠한 마음으로 존중해야 하는지 상호의존 신학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하나님은 자립만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교회라는 상호의존의 세계로 우리를 따로 구별해 불러들이신다. 상호의존의 신학은 모든 개개인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 그 이유는 이들 각자가 어떤 우월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모두가 전체 공동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상호 의존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지체에게 의존해야 함을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증언하기 위한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역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계심을 강조한다. 상호의존성은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이 있는 생명체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일깨워준다.[127]

이러한 유기적 관계 안에서의 안아주는 환경은 죽은 사람에 대해 남아 있는 분노에 대해서도 토로할 수 있게 하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포함하여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감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게 한다.[128] 존 코닉(Jone Koenig)은 환대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공간에만 사람들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여들며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소속되어 공동체에서 헌신하면서 영성이 깊어지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강조한다.[129]

교회 공동체와 개인의 영성은 무척 중요하다. 이들은 과거의 전통이나 구체적인 신앙공동체의 역사에 굳건히 뿌리내리지 않으면, 이러한 영성은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우리 이후에 올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성이나 헌신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영성이 될 것이다.[130]

---

[126] Anderson,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상실과 슬픔의 치유,* 194.

[127] Black, 55.

[128] Michael Kahn, *Basic Freud 프로이트 심리학,* trans. 안창일 (서울: 학지사, 2008), 221.

[129] Koenig, 10.

[130] Brita L. Gill-Austern, "Responding to a Culture Ravenous for Soul Food," *Journal of Pastoral Theology* vol. 7 (June 1997): 63-4, quoted in 정보라, "평신도 중심의 공동체적-상황적 목회돌봄에

개인의 영성이 경험하는 상황에서 출발하고 끝나는 영성에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영적 필요나 욕구 너머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원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개인이 사람 속에서 경험하는 상황 안에 갇혀 있는 영성, 즉 자신만이 생각하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하는 영성은 신에 대한 신앙적 고백에 근거한 계약관계에 헌신하고 책임을 다할 수는 없는 영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 이해에 있어서 상황적 고려만 있고 인간의 시공간을 관통하고 이어주는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영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성으로서 역할이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인간의 종교적 경험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131]

신앙공동체가 전수해 주는 신앙의 핵심 가치는 초월적이며 영원한 실재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다. 사람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반영되는 신앙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다. 신앙인은 자신이 스스로 행해야 할 규범을 소중하게 선택하고 지키며 발전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가치는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구체적인 활동이 될 것이다. 신앙인들은 가치체계로서 신앙의 삶을 창조하고 전수하는 과정에서 신앙을 매일 자신의 삶의 경험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실용적인 일상생활의 전략으로서 사용한다.[132]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공동체로서 고아와 과부에 관심을 갖는 돌봄으로 작은 자, 약한 자, 아픈 자 즉 비존재 같은 낯선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세상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했다.[133] 물론 교회 공동체라고 모두가 완벽한 공동체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적 공동체와는 분명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콘펠드(Kornfeld)가 말하는 허위 공동체와 진실 공동체는

기초한 실천신학 방법론 연구," *오순절 신학 논단* vol. 8 (December 2010): 71.

[131] 정보라, 71.

[132] 정보라, 83.

[133] Kornfeld, 68.

우리에게 많은 부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콘펠드(Kornfeld)에 따르면 허위 공동체는 구성원 개개인이 수용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간에 불통(不通)의 공동체라고 지적을 한다. 반면 진실 공동체는 내 집처럼 안정감을 주며,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 받아 줄 수 있는 공동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어떤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열린 공동체이다. 다름의 차이를 인정해 줄 때 바로 여유 있는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진실되며 무한한 관심을 가지며, 무엇보다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돕는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다.[134] 콘펠트(Kornfeld)는 참된 공동체는 은혜의 선물이며 공동체는 돌보는 사람들의 관계망으로 되어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랑으로 하나의 유기체 세포 조직(cell)처럼 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는 그 사랑을 지지하는 방식이 있다. 그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이기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 그런 지지적 사랑의 방식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참된 공동체 구성원들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자신과 다른 이들을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수용하는 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또한 그 사랑을 낯선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는 항상 변화하며 결코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는다. 참된 공동체는 항상 되어가고, 만들어져 가는 유동체이며 그렇게 움직여 갈 때 더 좋은 공동체로 변해 간다.[135] 환대신학적 신앙공동체는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다. 콘펠트(Kornfeld)가 제시한 진실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기독교적 신앙공동체요, 환대신학적인 신앙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

[134] Kornfeld, 70-1.
[135] Kornfeld, 72-4.

이 프로젝트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환대받지 못하고 소외 가운데 있는 배우자를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이 이러한 환대 신학적 신앙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환대적 돌봄의 실천에 앞서 목회적 돌봄에 대하여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문제나 아픔과 위기가 찾아오며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오직 그들과 함께하고 같이 울어 주며 교회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는 것이다.[136] 이제 목회적 돌봄은 목회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사역일 것이다.

목회 신학적 관점 중 패튼의 상황적-공동체적 돌봄을 통해 구체적인 목회적 돌봄의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패튼(John Patton)은 목회 신학과 목회 상담의 내용을 문제해결 중심적이기 보다는 "공감적이며 책임 있는(accountable) 관계"라고 보았다. 목회적 돌봄의 중심적 행위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속에서 경청하며, 경청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재구성하는 데 있다. 훌륭한 목회적 돌봄은 한 사람의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되는 것을 허락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경청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돌봄의 중요한 과제 수행을 위한 상황적 배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137] 그는 목회적 돌봄을 "사역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취하여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행동의 일치를 추구하므로 소외된 인간들에게 행해지는 기독교 공동체의 폭 넓은 반응"이라고 한다.[138]

패튼(John Patton)은 목회상담보다는 목회적 돌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목회상담은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반면 목회적 돌봄은 교회 공동체의 범위로 확장된다. 따

---

[136] Black, 50.

[137] John Patton, *Pastoral Care in Context: An Introduction 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과 상황,* trans. 장성식 (서울: 은성, 2000), 60.

[138] Patton, 122.

라서 목회적이란 단어는 목회자의 개인적 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가(specialist)로서의 돌봄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139]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신도가 지속적으로 목회자의 자문(consultation)을 받아 돌봄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평신도는 한 전문 분야에서 돌봄이나 공동체 사역, 그리고 교육 부분에서 전문적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한다.[140] 패튼의 목회적 돌봄은 개별자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한 개인을 말하고 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경청하고, 경청한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굳이 상담이론과 테크닉이 없어도 얼마든지 돌봄과 치유는 일어난다.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관계를 맺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마찬가지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현재의 상황들을 서로 듣고 기억함으로 돌봄을 베풀 수가 있다고 한다.[141] 그러므로 목회적 돌봄은 공동체적 돌봄이다. 우리를 기억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적 관계 그리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바로 목회적 돌봄이며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적 돌봄이다.[142] 다음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상실속에 있는 사별자들을 돌봄에 있어 환대적 돌봄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환대적 돌봄의 신앙공동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B. 환대적 돌봄의 신앙공동체 – 환대의 공간

김홍근은 그의 논문 *발달적 애도를 통한 변형적 내면화 과정*에서 사별자를 대할 때 상담자 스스로 인격을 갖추고 사랑이 많은 타자가 되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안아주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 공감적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애도과정이 변형적 내면화라는 발달적인 과정을 촉진하며 사별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로 인하여 사별자에게 내면의 건강한 자

---

139 Patton, 10.
140 Patton, 130.
141 Patton, 79.
142 Patton, 31.

아상을 심어 줌으로써 새로운 자아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143]

또한 목회적 돌봄의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좋은 대상의 내재화를 위한 활용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교회 공동체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사람에게 지탱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공동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따뜻한 소속감을 가지고, 사별자들에게 있어 좋은 대상이 되어야 하며 따뜻한 소속감을 주는 공동체는 사별로 인해 애도와 우울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만남에 도움을 주어야한다. 둘째, 인간은 그리스도의 몸과 실제적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주님의 삶을 대신하는 빵과 주님의 피를 대신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현존과 우리의 삶이 하나로 융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례전이다. 성례전을 통하여 얻게 되는 믿음과 고백 속에서 빵과 포도주로 인해 연합되는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되는 것이며 이러한 성례전을 통해 기독교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비적 연합과 체험은 상처를 이겨 낼 힘이 될 것이다. 셋째는, 관계적인 기도이다. 관계적인 기도는 상대와의 신뢰할 만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감정까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도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떠넘기지 않고, 대상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가능하며, 그러므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넷째는, 독서를 통한 훈련을 통해 내면의 깊은 사고로 평온한 마음으로 유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각과 마음이 단순해지고, 확신 중에 평온 해져 내적 고요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다섯째는,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

[143] 김홍근, "발달적 애도를 통한 변형적 내면화 과정," *신학과 실천* vol. 24, no. 2 (September 2010): 135.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애도자는 죽음이 주는 분리와 이별의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상실한 대상의 부활과 다시 만남에 대한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만 상실한 대상의 죽음을 잘 견딜 수 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144]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에게 온전한 환대의 공간이 되어 줌으로 그곳에서 자신이 수용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고 웃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수용 - 말할 수 있는 환대의 공간

수용을 위한 환대신학적 공동체는 말할 수 있는 환대의 공간이다.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의 삶은 사별 전의 삶과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낯설어진 사별 후 삶의 공간을 다시 익숙함으로 채워 나갈 때 지금의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을 토해낼 공간이 필요하다. 예수는 뽕나무 위에 앉아 있던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행 19:5, 개역개정)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되었던 삭개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공간이 되어 주었다. 교회 또한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에게 자신을 수용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한다. 지금 남편이 떠난 빈자리에서 그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를 안아주는 수용의 공간’이야말로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환대일 것이다. 이것이 그들을 위한 진정한 환대의 첫 걸음이 아니겠는가?

[144] 김홍근, 137-8.

슬픔을 당한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는 스스로 처리했을 일들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대신해 줌으로 상실을 당한 사람이 일상적인 일들과 책임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애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대나 시간, 또는 공간 때문에 구속받지 않고 슬퍼해야 한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사람은 상실을 겪어내고 고통을 느끼기 위한 시간과 감정의 자유를 갖도록 가능한 한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145] 이는 상실을 당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느낄 만한 충분한 시간을 줄 때 오히려 슬픔의 기간은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층면담 분석 결과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은 상실의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감정의 자유를 가져야 할 애도의 과정을 외면해 버렸다. 그뿐만이 아니라 애도의 방법을 모르고 도움조차도 요청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쩌면 사별자들에게 교회는 허수아비가 되었고 그들은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나가고 슬픔의 감정을 처리하는 것은 오로지 그들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아픔을 공감하고 수용해준다는 것과 아픔속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 하는 일이란 쉽지 않다. 위로 받고자 하는 이들이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렵고도 조심스럽다.

최재락은 인간이 상실에 직면할 때 충격적 상태에서 마비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실도피적인 상태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솔직한 표현이 요구되며 우울증과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종교적 차원에서 가치관이 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의식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개방하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적개심과 무기력증은 보살핌의 인간관계를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 그렇게 슬픔의 감정이 발전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별자들은 성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45] Anderson,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상실과 슬픔의 치유*, 124-7.

슬픔을 통하여 성숙해지며 희망적이라고 하였다.[146] 그러므로 교회는 이들을 '혼자 고통'하게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되며 충분히 수용 받고 존중받는 '함께 고통 함'의 경험을 통해 상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대의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한다.

2. 관계회복 – 밥상이 있는 환대의 공간

관계회복을 위한 환대신학적 공동체는 밥상이 있는 환대의 공간이다. 교회는 배우자를 사별한 이들에게 언제든 갈 수 있는 엄마의 밥상이 되어 주어야 한다. 내가 삶에 지치고 힘들어 친정 엄마를 찾아 갔을 때 기역자로 굽은 허리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던 엄마의 사랑을 기억한다. 밥상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밥 먹는 딸의 모습에 시선이 머물러 있다가 다 먹은 밥상을 윗목에 밀쳐 놓고 딸을 품에 안고 이마를 쓸어 주며 눈물을 닦아주었다. 한숨 자고 일어나 떠나는 딸에게 '엄마 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 오렴.'하던 엄마의 사랑처럼 환대신학적 공동체는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의 상실의 아픔을 그대로 안아주고 지지해주는 환대의 밥상이 되어주어야 한다.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하는 일은 보살핌도 함께 하는데 그들에게는 아무 말없이 편안하게 들어주면서 그저 옆에 있어주는 지지여야 한다. 그들의 고통과 혼란을 함께 견뎌주며 강한 슬픔의 감정을 들어 냈을 때 마음을 다해 격려해 주고 반응해 주는 지지여야 한다. 또한 정서적으로 지지가 필요할 때도 적극적인 지지를 하며 힘을 빌려주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를 요하는 것이 있다면 너무 빠른 위로는 감정적인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고통스럽지만 슬픔을 헤쳐 나가는데 필요한 과정을 멈추게

[146] 최재락, 288.

하므로 전혀 빠른 위로는 잘못된 위로라 말 할 수 있다.[147] 그러므로 빠른 위로는 고통이 없어지는 것보다 방해만 될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로는 함께 있어주겠다는 약속이다. 또한 위로는 기다림이며 장기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지쳐있을 때 밥상의 지지는 더더욱 필요하며 밥상의 지지는 단절된 관계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의 식탁교제는 환대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으로 초대하는 자리이다. 환대는 가족과 이웃을 포함할 뿐 아니라 적의를 가진 원수나 낯선 자도 포함하는 성격을 가진다. 하용수는 환대는 본래 음식 문화적 성격을 가진 개념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환대의 한자어 환(歡 기쁠 환)은 "음식 앞에 앉아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으로 음식 먹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이다. 뒤에 나오는 대(待 기다릴 대)는 "무엇인가 행동하기 위하여 준비를 갖추고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환대란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란 뜻을 갖는다.[148]

예수는 눅24:30-31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다.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연합하고 연대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보이셨다. 예수의 밥상 공동체에는 개방적인 가족관 즉, 혈연적인 개념을 뛰어 넘는 확대된 가족으로 사회 계층의 벽이 존재하지 않으며 차별 없는 식탁이었다.[149] "치유가 죽어 가는 몸에서 생명을 소생시키는 영적 기적이라고 한다면, 식탁교제는 살아 있는 인간의 몸에서 생명을 키워 가는 것이다."[150] 교회는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에게 아무 말없이 그저 옆에 있어주고 견뎌주고 홀로 버려 두지 않고 함께 있어주겠다는 절대적 지지 자로서의 환대의 밥상이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

[147] Anderson,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상실과 슬픔의 치유*, 132-8.

[148] 하용수, "주의 만찬의 재발견: '환대'로 본 예수의 식탁교제" (DMin project,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8), 12.

[149] 한기채, "예수사건의 윤리학," *신학과 선교* 28 (June 2003): 319.

[150] 조태연, *예수이야기 마가 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16.

3. 전인적 치유 – 쉼이 있는 환대의 공간

전인적으로 회복을 위한 환대신학적 공동체는 쉼이 있는 환대의 공간이다. 심신이 고단할 때 우리는 어딘가로 떠나 푹 쉬고 싶어한다. 배우자를 사별한 이들에게는 더욱 쉼이 필요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개역개정)". 여기서 수고하고 라는 헬라어는 '코피온테스'(κοπιώντες)로 이 말의 뜻은 현재 계속 피곤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무거운 짐 진 자란 말은 '페풀티스메노이'(πεφορτισμὲνοι)로 이 말의 뜻은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은 현재 피곤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사별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9-30, 개역개정)

인간은 하나님의 환대 가운데 쉼을 경험한다. 주님의 환대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는 합력하여 그 무한한 사랑을 베풀 수 있다. 교회가 쉼이 있는 환대의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함은 단순한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때는 다 포기하고 죽고 싶었다는 연구 참가자의 고백처럼 사별자들은 심신이 지쳐있다. 그때 가장 적절한 돌봄의 형태는 '끈질긴 격려'라고 할 수 있다. 회상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기억하는 것은 추억을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과거로부터 멀어 지는 정서적 거리를 얻게 해준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도 과거와 연관된 감정으로부터 확실히 자유를 얻게 해준다.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슬퍼 할 때 적극적으로 추억 속에 저장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정서적으로 풀려날 수 있는 것이다.[151] 이렇게 쉼이 있는 환대의 공간에는 그들을 상실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하고 추억을 만들어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정서적으로 풀려날 수 있는 온전한 쉼이 머물러야 한다.

신앙공동체는 신뢰가 있는 안전한 장소로써 그리스도안에서 사별자들이 자신의 상실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별자들을 배려해야 하고 사별자들 만의 모임을 위한 분위기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별자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관계망'(wholeness network)을 동원하여 전인적 공동체의 돌봄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152]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비천하고 비존재였던 이들을 연민적 시선으로 함께 하였던 예수의 시선을 배워 상실의 아픔에 신음하고 배우자를 사별한 이들의 짐을 함께 지고 동행하므로 그들이 쉴 수 있는 환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4. 지속적 돌봄 – 정기적 모임이 있는 환대의 공간

지속적으로 돌보는 환대신학적 공동체는 정기적 모임이 있는 환대의 공간이다. 데니스 클라스(Dennis Klass)와 필리스 실버만(Phyllis Silverman)은 감정적인 결속을 끊는 것이 슬픔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별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도움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고인을 잊어버리지 않는 지속적인 연결점을 가지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인과의 지속적인 결속을 도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하였다. 첫째, 그는 의례(ritual)라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장례 이후에도 가족들이 함께 지속적인 추모식을 하고, 수시로 묘지를

[151] Anderson,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상실과 슬픔의 치유,* 142-3.
[152] 이창규, 326.

방문하는 것도 좋고, 생전에 고인과 함께 갔던 중요한 장소나 추억이 많은 장소를 찾아가보는 일도 도움이 되며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고인과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며 생각하는 것도 좋다고 한다. 또한 병원이나 호스피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아가 봉사 활동을 하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 내적인 방법으로 고인과의 내적인 연결점을 가지는 것이다. 고인이 천국에 있다는 믿음과 언젠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믿음은 고인을 잃은 사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 속에서 죽은 고인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현재의 삶을 더 바르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153]

이런 애도과정을 통하여 사별자들은 슬픔을 헤쳐 나갈 수 있으며 상실로 인해 고갈된 자아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새로운 생활 양식을 정립해 갈 수 있다.[154] 또한 상실과 슬픔은 삶의 한 부분이으로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므로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슬픔은 피해 갈 수가 없다. 어차피 피해 갈수 없고 당해야만 하는 고통이라면 상실과 슬픔 앞에서 이 고통을 잘 견디고 이겨 내야 할 것이다.[155] 그러나 상실을 경험하는 이들의 질문은 '왜 하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이다. 이 물음 앞에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는 상처에서 치유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돌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심각한 상실은 하나님에 대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상실 후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여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정기적 모임이 있는 환대의 공간으로 사별자들을 품는 환대적 신앙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

[153] Dennis Klass, *The Spiritual Lives of Bereaved Parents* (Philadelphia: BrunerMazel, 1999), 40, quoted in 윤득형, 430-1.

[154] Anderson,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상실과 슬픔의 치유,* 150.

[155] Anderson, 192-3.

환대신학적 신앙공동체란 예수 제자 공동체나, 초대교회 신앙공동체와 같이 환대신학을 내포하고 있는 신앙공동체이다. 새로운 방식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활동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환대적 신앙공동체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 교제를 통해 아바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치유와 돌봄과 지원 활동을 하는 환대적 신앙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C. 환대적 돌봄의 실천 제시

환대는 사별자들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더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환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들에게는 좀더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더욱이 환대적 돌봄은 기독교 전통으로서 사별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별에 대한 슬픔이나 외로움 그리고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받아주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자신 안에 '공간 만들기(making room)'를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환대의 핵심적 특징이며 교회 공동체의 목회적 돌봄에 있어 환대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156]

환대적 돌봄은 예수의 사랑이며 제자들의 발 씻기시는 섬김과 헌신의 모습처럼 온전한 낮아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환대의 돌봄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안아 줌으로 사별자들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따라서 환대적 돌봄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관계 회복과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공동체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마음을 열어 회개와 화해와 함께 하나됨을 경험한다. 이러한 환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156] 오오현, 321.

소그룹 사역의 가장 기초가 되며 목회적 치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157] 오오현도 교회에서 환대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대를 체험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환대의 자유롭고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환대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때 양적·질적으로 성숙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공간'이란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공간일 수도 있다. 즉,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의 세계도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공간이 되어 줄 수도 있다. 나아가 그를 위해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기도해줄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진정한 환대인 것이다.[158]

그러므로 환대는 낯선 자들이 들어와도 그들이 그 공간에서 낯설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친구 같은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환대를 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있다면 사람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공간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대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사별자들이 자신의 아픔을 충분히 애도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아닌 더 성숙한 모습과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돕는 장이 되어야 한다. 헨리나우웬은 환대란 우리의 공간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간안에 그들의 공간이 들어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방법을 찾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159]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자리를 만든다던지 공간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별자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

157 Koenig, 11.

158 오오현, 339.

159 Nouwen, *Reaching Out: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 영적 발돋움*, 85.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즉각적인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확실한 결과를 요구하고 기대가 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성급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너무 두려움이 심해 시작도 못해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자유롭고 친밀한 공간을 박차고 나갈 수도 있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대는 그들을 위한 좋은 공간, 편안한 공간, 친밀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환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감정과 복잡한 상황과 힘듦 속에서도 비어 있는 자신의 마음 한 구석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자신의 빈자리는 두려움을 갖다주기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돕는 것이 환대적 돌봄의 실천인 것이다. 환대적 돌봄의 실천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채우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로우면서도 친밀함이 있는 공간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면의 두려움을 밀어내고 묶인 감정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기위해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나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환대의 공간은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을 새로운 관계로 이끌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다. 나무를 자라게 할 수는 없지만 성장을 방해하는 불편한 요소들을 치워주면서 좋은 환경을 통해 스스로 변화를 알아차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환대이다.[160]

그러나 환대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으나,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환대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마치고 커피나 과자를 대접하거나 혹은 저녁에 식사를 하기위해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람들은 환대라는 개념을 기꺼이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낯선 자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우며 혹시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서로에 대한 차이에 의하여 거북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환대를

160 Nouwen, 92-3.

실천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161] 김홍근은 애도자를 돕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공동체 안에서 상실로 인하여 고통하며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동체는 애도자에게 관심을 갖되 홀로 두어야 하며 결코 그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조금씩 다가가야 한다. 한 잔의 차와 온화 한 말씨로 대화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아주는 공동 체의 구성원은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보다 더 낫거나 현명한 척을 할 필요도 없다. 단지 서로가 서로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있음을 알며, 평화와 따스함과 함께 존재하는 데서 오는 샘 같은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162]

환대는 우월함이 열등함을 돌보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관대함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할 때 환대는 망가지게 된다. 만일 교회 공동체가 환대를 실천할 때 그들도 우리처럼 옷을 입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풍습을 따라 행동하도록 주장한다면 그것은 환대가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기대에 맞추어 우리만의 방식대로 '교정'하려는 것이다.[163]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서 자신처럼 바꾸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잠시 머물러 주는 것, 또는 우리 안에 그들을 잠시 머물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이면 된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대를 필요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함을 알면서도 환대의 실천을 외면하고 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환대요 가장 쉬운 것이 환대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그렇다면 신앙공동체가 사별자에게 실천할 환대는 어려운 것일까? 사별자들에게 필요한 환대는 굳이 무엇을 하려고 안해도 된다. 애써 그들의 눈물을 빨리 멈추게 하지 말아야 하며 슬픔에게 자리를 내어 주는 것이면 가능하다. 이야기할 때 들어주고 울고

---

[161] Chrisine D. Pohl,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9), 31, quoted in Russell, 127.

[162] 김홍근, 136.

[163] Russell, 128.

있을 때 울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환대의 공간이 되어 주는 것이다.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함께 고통 하는 환대적 돌봄의 실천을 다음과 같이 시작해 본다.

1. 말할 수 있는 환대의 공간 – 편지

말할 수 있는 환대의 공간 – 편지	
목 표	1. 고인에게 띄우는 편지 그리고 답장 a. 고인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한다. b. 고인으로부터 답장을 받아보고 고인과 사별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2. 내게 띄우는 편지 그리고 답장 a. 배우자와 사별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표현하게 한다. b. 사별한 나로부터 답장을 받아보고 변화된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진 행	1. 리더는 눈을 감게 하고 마음속에 고인을 초대할 수 있도록 음악과 함께 인도한다. 보고픔, 그리움, 미안함, 고마움, 미움, 원망 등 그 어떤 감정도 모두 허용해 주고 울고 싶으면 울 수 있도록 머물러 주며 슬픔에게 자리를 내어 줌으로 충분히 기다려 준다. 그리고 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쓸수 있도록 편안하게 분위기를 이끈다. 2. 다음은 고인의 자리에 앉아 고인이 되어 혼자 남겨진 나에게 답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때도 감정을 억누르지 않도록 감정에게 공간을 내어준다. 3. 편지를 다 쓴 후 보낸 편지와 받은 답장을 읽게 한다. 읽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4. 그리고 나 혼자서도 자신과의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유족이 추도예배 때 고인과의 편지 주고받기를 할 수 있도록 과제를 내주는 것도 괜찮다.
나 눔	1. 고인에게 띄우는 편지 그리고 답장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편히 지내고 있으니 행복하게 지내라고 하면서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진짜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편안해요." 2. 내게 띄우는 편지 그리고 답장 *"내가 나로부터 위로 받고 내마음을 내가 가장 잘 알아주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놀랍기도 하고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아요"*
마무리	소감을 나눈 후 편지를 십자가 앞에 올려 놓고 기도로 마무리한다.

2. 밥상이 있는 환대의 공간 – 위로의 밥상

밥상이 있는 환대의 공간 - 위로의 밥상	
목 표	1. 고인과 함께했던 밥상 고인이 좋아했던 밥상 또는 함께 즐겨 먹던 밥상을 차려 고인과 함께했던 지나온 세월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2. 나만을 위한 밥상 자신이 가장 먹고 싶은 밥상을 마주하고 자신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진 행	1. 리더는 음악과 함께 눈을 감게 하고 고인이 살아 있을 때 좋아했던 음식과 행복했던 밥상을 그려 보고 그 밥상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2. 다음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과 위로가 되어줄 음식이 무엇인지 오직 자신만을 위한 밥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회 공동체는 고인과 행복했던 밥상을 직접 차리거나 고인과 자주 갔던 식당으로 초대해서 고인과의 추억과 함께 못다한 해피엔딩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한다. 나만을 위한 밥상에서는 사별 후 지쳐 있는 이들은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교회 공동체가 직접 밥상을 차려 초대해도 좋고 식당으로 초대해도 좋다. 오직 사별자만을 위한 밥상으로 식탁교제를 나눈다. 4. 그리고 사별자 스스로가 고인을 위한 밥상과 자신만을 위한 위로의 밥상을 차려 볼 수 있도록 과제를 내 주는 것도 괜찮다.

나 눔	1. 고인과 함께했던 밥상 *"마치 남편을 만난 것처럼 좋기도 하고 더 보고 싶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2. 내게 띄우는 편지 그리고 답장 *"지금껏 살면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지 나만을 위해서란 삶은 없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나를 귀하게 챙기며 살아가야겠어요. 억울하지 않도록요."*
마무리	내가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법을 하나씩 실천하길 작정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

3. 쉼이 있는 환대의 공간 - 치유의 여행

쉼이 있는 환대의 공간 - 치유의 여행	
목 표	1. 고인과 행복했던 여행 부부가 행복했던 여행을 통해 죽음은 관계가 단절되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추억을 말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2. 나만을 위한 여행 내가 가장 가고 싶은 여행을 통해 가끔은 쉼을 얻고 치유가 되는 자신만을 위한 여행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진 행	1. 리더는 음악과 함께 눈을 감게 하고 고인이 살아 있을 때 부부가 행복했던 여행은 어떤 여행이었는지 그런 추억이 없다면 지금 함께 가고 싶은 여행은 어딘지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도 괜찮다. (이 때 미리 여행 사진을 준비하게 하여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하게 한다.) 2. 다음은 내가 가장 가고 싶은 여행은 어떤 여행이며 그 여행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환대의 공간이 되어 준다. 3. 교회 공동체는 고인과의 추억 여행에 함께 떠나 그 곳에서 또다른 애도과정을 갖을 수 있으며 나만을 위한 여행에도 동행하여 앞으로 나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누어 본다. 4. 그리고 사별자 혼자서 추억여행과 위로여행을 갈 수 있도록 과제를 내 주는 것도 괜찮다.

나 눔	1. 고인과 행복했던 여행 *"남편과 여행을 한번도 못 가봤는데 함께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에 가서 실컷 울고 오니 맘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2. 내게 띄우는 편지 그리고 답장 *"생각해 본적이 없던 나만을 위한 여행이었는데 이렇게 갈수 있는 걸 왜 그동안 못갔을까요?"*
마무리	나를 위한 건강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

4. 정기적 모임이 있는 환대의 공간 – 예배와 삶의 나눔

정기적 모임이 있는 환대의 공간 – 예배와 삶의 나눔	
목 표	1. 예배 정기적 모임에서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이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는데 중요함을 경험하게 한다. 2. 삶의 나눔 정기적인 모임에서 기도와 함께 삶을 나눔으로 상실의 아픔이 전부가 아니며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한다.
진 행	1. 신앙공동체는 사별자가 함께 하길 원하는 지지 그룹을 형성하여 정기적 모임을 갖는다. 리더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중보기도 시간을 갖는다. (이때 목사님을 초대해도 괜찮다.) 2. 삶의 나눔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다양하게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환대의 공간이 되어준다.
나 눔	1. 예배 *"가장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데 지지 모임이 함께 기도해 주니 힘이 나요 고맙죠."* 2. 삶의 나눔 *"앞이 깜깜 할 때 서로 내일처럼 도와주는데 이 모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도 이렇게 받은 환대를 다시 돌려 줘야죠."
마무리	감사한 것 하나씩 이야기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

이런 환대적 돌봄을 실천함에 있어 꼭 지켜야 할 것은 사역자는 너무 앞서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멈출 때 멈추고 울 때 울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말하고 싶어 할 때 충분히 말 할 수 있도록 잠잠히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 교회는 환대의 공간이 되어 그들의 아픔을 담아주고 안아주어 그들이 소외의 자리가 아닌 함께 누리는 자리로, 아픈 위로가 아닌 따뜻한 위로로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어느 한 쪽에 의존되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유함으로써 전인적 치유가 되어 당당히 자신을 사랑하고 홀로된 자신의 삶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 환대의 돌봄이 있는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왜 우리는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들을 환대해야 하는가?' 이 물음을 수도 없이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몇명의 배우자를 사별한 기독교 여성들은 사별 후 변화된 삶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 환대의 공간에는 하나님과 지지자가 함께 하였다. 참가자 B는 상담실에서 마치 예수님이 안아주는 것 같은 위로를 경험하였고 참가자 C도 OO호스피스안에 있는 사별자를 위한 지속적인 위로 모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다. 참가자 D는 사별 후 교회를 옮기고 그 곳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함께 해주고 진정으로 기도해 주는 목장식구들로 인해 상처가 치유되고 많은 쉼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신학교에도 입학하여 지금은 평신도 선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들은 환대의 경험을 자원으로 건강한 삶으로의 발을 내딛는다. 어쩌면 이것이 물음에 대한 일부의 답일 수도 있다. 아주 작은 환대가 사별자들을 살리고 생명임을 느끼게 한다면 우리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회피할 수가 없다. 환대적 돌봄은 비단 사별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나는 또 물을 것이다. '왜 우리는 낯선 자를 환대해야 하는가?

Chapter V

결론 및 제언(Conclusion and Suggestion)

배우자와 사별하고 상실에 빠져 있는 여성들은 교회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교회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기준을 맞춰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여다보고 함께 하기 보다는 이들의 상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며 빨리 울음을 멈추게 한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들과 함께 고통 하면서 상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울것인가? 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질적 연구의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4 개의 범주와 8 개의 주제군과 26 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4 개의 범주를 환대 신학적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4 개의 범주는 첫째. 낯선 빈자리. 둘째, 단절된 관계. 세째, 부분적 치유. 네째, 일시적 돌봄이다. 첫째 범주에서는 남편의 빈자리로 인하여 자신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서 만나는 낯선 빈자리의 갈등. 둘째 범주에서는 교회에서 받은 위로가 상처가 되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단절된 관계의 갈등. 셋째 범주에서는 하나님 또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부분적 치유의 갈등. 넷째 범주에서는 장례식에서의 일시적 돌봄과 그후 지속적 돌봄이 없으므로 인한 갈등을 논하였다. 그리고 분석한 4 개의 범주에서 나타난 갈등을 치유로 이끌 수 있는 환대적 돌봄을 제언하였다.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을 위해서 교회는 그대로 안아주는 '환대의 공간'이 되어주어야 한다. 첫째, 남편이 없는 낯선 빈자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환대의 공간. 둘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밥상이 있는 환대의 공간. 셋째, 부분적 치유를 전인적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쉼이 있는 환대의 공간. 넷째, 일시적 돌봄이 지속적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 모임이 있는 환대의 공간이다.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치유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164]

따라서 나는 모든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대적 돌봄의 실천을 제시하였다. 첫째, 말할 수 있는 환대의 공간에서는 남편에게 편지를 쓰고 답장을 받아 본다. 그리고 나를 위한 편지와 답장도 써본다. 둘째, 밥상이 있는 환대의 공간에서는 남편이 좋아했던 밥상과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나만을 위한 위로의 밥상을 받아본다. 셋째, 쉼이 있는 환대의 공간에서는 남편과 함께 갔던 여행과 내가 가고 싶은 나만의 치유여행을 떠난다. 넷째, 정기적 모임이 있는 환대의 공간에서는 예배와 함께 삶을 나누며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 내가 제시한 이 환대적 돌봄의 실천들은 애도적 관점 즉 수용적 관점에서의 있는 그대로 껴안아 주기이다. 목회적 돌봄이 교회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사별한 여성들에게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

때로는 상실한 여성을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 어떠한 위로의 말보다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사별들에게 더 큰 치유가 있는 것을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었다. 교회 공동체는 사별로 인한 상실을 너무 빠르게 제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거나 또는 너무 무관심 해서는 안되며 상실의 아픔을 그대로 담아주고 안아주는 수용의 관점에서 환대가 있어야 한다. 사별자의 입장에서 지나친 위로나 혹은 그 상황을 자꾸 회피하게 하려는 위로의 언어들 '나중에 가면 만날꺼야. 부활신앙을 믿어. 고통없는 천국으로 갔으니 얼마나 좋아.' 등 위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게 하는 위로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오히려 사별들자에게 상처가

[164] 나는 CST D.Min. 과정 중에 있다. CST D.Min. 과정의 방향성은 갈등, 치유, 변화를 위한 실천신학 (D. Min. in Practical Theology of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이다.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무관심과 소외로 갈등속에 있다면 그가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는 함께 고통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이 과정속에서 배운 실천신학이다.

될 수도 있다. 그냥 바라봄으로 '힘들지. 힘들 때 내가 함께 있을께.' 란 말이 훨씬 더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회 공동체의 위로가 위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인간이 처하고 있는 감정 그대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슬픔의 감정을 외면한다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소외감을 갖게 할 수 있다. 만약 교회 공동체가 사별자들의 내면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면서 '우리는 부활 신앙이며 아픔이 없는 천국으로 갔으니 기뻐하라.'는 위로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때 상실감은 소외감으로 소외감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안에서 상실에 대하여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 그 자체에 대한 애도가 필요하다. 그 애도가 사람을 치유한다. 우리는 잘 아는 사람,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맞아들이는 일에는 익숙하나 불편하거나 모르는 낯선 이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익숙한 '우리' 가 아닌 낯선 '그들'을 위해 교회가 환대의 공간이 되어 그들의 소리를 들어줄 때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이 치유되고 변화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의 변화는 환대에 대한 인식이다. 멀게만 느껴지고 불편하기만 했던 환대가 나와 가까운 곳에 있으며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냥 지금 여기에서 환대의 실천은 시작된다. 또 하나는 사별자들에게 가졌던 편견이다. 상담현장에 찾아오는 사별자들처럼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함께 한다면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러한 확신은 이 프로젝트 과정 중에서 내가 받은 무조건적 환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목회의 경험이 없는 나에게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은 낯설음 그 자체였다. 그런 나에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고통해준 환대의 공간이 있었다. 그 환대의 공간이 김남중 교수이다. 여러

사정으로 제시간에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손을 놓을 법도 한데 김남중 교수는 나의 더딤과 느림에 기꺼이 머물러 주었다. 단 한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고 웃고 또 웃고 토닥이고 또 토닥이면서 부족한 이 학생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담아주고 안아 주었다. 때로는 지쳐 있는 내 공간으로 들어왔고 때로는 자신의 공간을 내어 주었다. 내가 느낀 그것은 연민적 시선이요 함께 고통함이었다. 배울 학생의 권리를 흥건히 누리게 하였고 가르치는 교수의 권리를 맘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마지막 구두시험장에서 나는 또 하나의 환대를 만났다. 김용환 교수이다. 그 곳에도 모름에 대한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없었다. 하나하나 들어주고 세세히 알려주고 이해가 될 때까지 정말 귀하게 존중해 주었고 나의 부끄러움을 따스한 환대로 녹여 주었다. 그렇게 나는 여기까지 와 있다. 이 환대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무엇이 환대이며 환대의 공간이 되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다. 엄마에 대한 애도작업과 상담현장에 찾아온 사별자들의 깊은 상실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하였다면, 김남중 교수와 김용환 교수로부터 받은 환대는 내게 선물이 되었고 환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선물이 될 것이다. 특히 목회자로서 상담사로서 가는 그 길목에 낯선 이들을 향한 나의 환대가 놓여 질것이다.

교회에서 환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한다. 그런 환대를 실천하기에 앞서 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진정한 위로에 대하여 환대에 대하여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어떤 것이 아픈 위로이고 따뜻한 위로인지 무엇이 상실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한 돌봄인지 알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제시된 환대적 돌봄의 실천을 통해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이 어떻게 환대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긍정적 위로가 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연구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사별자를 위한 환대 신학적 신앙공동체 사역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확장해 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상실로 인해 소외되어 있는 이들을 향한 무조건적 환대로의 실천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혜를 구하면서 끊임없이 연민적 시선을 가지고 환대를 실천하는 신앙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한국 교회가 환대의 공간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리하여 상실속에 있는 낯선 자들이 지금의 나를 말하므로 지금의 나를 수용할 수 있고 위로의 밥상을 마주하므로 관계가 회복되며 쉼을 얻으므로 전인적 치유가 되고 지속적인 돌봄으로 인하여 성숙한 변화가 일어나는 환대의 공간이 확산되길 소망해 본다.

부록 A: 연구참여동의서
(Appendix A: Informed Consent Form)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11)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박선희입니다. 저는 "배우자 사별 후 기독교 여성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에 배우자 사별 후 여성들이 교회내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담당하시는 김용환 교수의 지도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와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메일 (yhkim@ptsa.edu)으로 연락하시거나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신다면, 귀하는 심층 인터뷰에 약 60 분가량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진행 과정 동안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고 필사될 것입니다. 녹음된 모든 내용과 필사본은 논문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고 논문 연구가 끝나면 모두 파기될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참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이름, 이메일, 다른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만 보관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논문에 귀하의 인터뷰 내용이 기재될 때 귀하의 성함과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기재함으로써 귀하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연구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참여 철회는 귀하가 가지고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연구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참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자 박선희의 전화번호 ***-****-**** 혹은 이메일 pshwys@hanmail.net 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2018-14)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 심사위원회 회장, 김두영 박사의 연락처인 ***-****-**** 혹은 viastar@hanmail.net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자: 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참여자의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자: 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문헌

Bibliography

1 차 자료(Primary Resource)

[한서]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 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______.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사상사, 2015.

서근원.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시대의 삶과 문화와 교육, 그리고 질적연구.* 파주: 교육과학사, 2013.

서창원. *깨어있는 예수의 공동체.* 서울: 진리의 깃발, 1999.

손재익. *특강 예배모범.* 서울: 흑곰북스, 2018.

이병철. *성서원어대전.* 서울: 브니엘, 1985.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조태연. *예수이야기 마가 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영서]

Neuger, Christie C.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1.

[번역서]

Anderson, Herbert.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상실과 슬픔의 치유.* Translated by 김형준 and 윤혜원. 서울: 상담과 치유, 2012.

Black, Kathy. *A Healing Homiletic: Preaching and Disability 치유 설교학: 설교와 장애.* Translated by 이승진. 서울: CLC, 2008.

Borradori, Giovanna.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테러시대의 철학: 하버마스, 데리다와의 대화.* Translated by 손철성, 김은주 and 김준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Calhoun, Lawrence G., and Richard G. Tedeschi.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ractice 외상 후 성장.* Translated by 강영신. 서울: 학지사, 2015.

Derrida, Jacques. *De l'hospitalite' 환대에 대하여.* Translated by 남수인. 서울: 동문선, 2004.

Hurding, Roger. *The Bible & Counseling 성경과 상담.* Translate by 문희경.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3.

Kahn, Michael. *Basic Freud 프로이트 심리학.* Translated by 안창일. 서울: 학지사, 2008.

Kast, Verena. *Trauernt 애도.* Translate by 채기화. 서울: 궁리출판, 2015.

King, Nigel., and Christine Horrocks.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에서의 인터뷰.* Translated by 김미영 et al. 서울: 현문사 2013.

Koenig, John. *New Testament Hospitality 환대의 신학.* Translated by 김기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Kornfeld, Margaret. *Cultivating Wholeness 공동체 돌봄과 상담.* Translated by 정은심 and 최장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Norman, Wrigh H. *Crisis Counseling 위기 상담학.* Translate by 전요셉 and 황동현. 서울: 쿰란, 1998.

Nouwen, Henri. *Reaching Out: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 영적 발돋움.* Translated by 이상미. 서울: 두란노, 2007.

______________.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Translated by 최원준. 서울: 두란노, 2003.

Patton, John. *Pastoral Care in Context: An Introduction 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과 상황.* Translated by 장성식. 서울: 은성, 2000.

Siegel, Ronald D., and Christopher K. Germer. *Mindfulness and Psychotherapy 마음챙김과 심리치료*. Translated by 김재성. 서울: 무우수, 2009.

Volf, Miroslav. *Exclusion and Embrace 배제와 포용*. Translated by 박세혁. 서울: IVP, 2012.

Wise, Carroll A., and John E. Hinkle. *The Meaning of Pastoral Care 영혼을 돌보는 목자*. Translate by 이기승. 서울: 세복, 1998.

Worden, J. William.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유족의 사별슬픔 상담과 치료*. Translate by 이범수. 서울: 도서출판 해조음, 2010.

[저널]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기독교사상* vol. 668 (August 2014): 234-50.

강영안. "향유와 거주: 레비나스의 존재 경제론." *문학과 사회* vol. 8, no. 4 (November, 1995): 1522-548.

강정희. "환대의 윤리 관점에서 본 이주노동자 정책과 한국 교회의 과제." *신학과 사회*, vol. 32, no. 2 (May 2018): 73-108.

김 준. "교회의 돌봄 사역: Heinz Kohut 의 자아심리학과 신약의 제자의 모습을 통한 돌봄 사역자의 자세." *복음과 실천신학* vol. 18 (November 2008): 9-33.

김영희. "고난 속 고통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고통을 통한 인생의 의미." *복음과 상담* vol.14 (May 2010): 218-39.

김은정. "환대적 학습환경과 기독교교육." *인문학논총* vol. 33 (October 2013): 231-48.

김이곤. "약자 보호법, 계약법전." *기독교사상* vol. 32, no. 10 (October 1988): 188-202.

김진영. "애도(哀悼)과정의 목회상담적 이해." *목회와 상담* vol. 15 (November 2010): 122-49.

김홍근. "발달적 애도를 통한 변형적 내면화 과정." *신학과 실천* vol. 24, no. 2 (September 2010): 109-42.

손운산. "낯선이를 환대하라." *기독교 사상* vol. 640, no. 4 (April 2012): 260-70.

안유숙. “기독교 여성노인의 배우자 사별 적응 경험 연구.” *목회와 상담* vol. 26 (May 2016): 203-41.

오오현.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공간으로서 환대에 관한 소고.” *신학과 실천* vol. 38 (February 2014): 319-45.

왕대일. “나그네(게르, גר)-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vol. 113 (June 2001): 101-21.

윤득형. “애도상담의 기본 원리와 목회적 접근.” *신학과 실천* vol. 58 (February 2018): 417-46.

이창규. “사별의 슬픔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와 신앙공동체를 통한 목회 돌봄과 상담.” *신학과 실천* vol. 53 (February 2017): 305-36.

이후정. “이웃 사랑과 환대의 영성.” *기독교 사상* vol. 674, no. 2 (February 2015): 206-14.

정경호.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밥상.” *기독교사상* vol. 657, no. 9 (September 2013): 80-91.

차정식. “역동적 삼각관계와 공동체의 윤리-빌레몬서와 요한삼서를 중심으로.” *신약논단* vol. 19, no. 2 (June 2012): 593-623.

최병학 and 오정대. "환대와 포용의 윤리, 그리고 포옹." *윤리교육연구* vol. 49 (July 2018): 207-37.

최재락. “슬픔의 치유를 위한 기독교상담.” *신학과 실천* vol. 23 (May 2010): 287-315.

최지영. “사별과 목회적 돌봄: 관계적 체계 모델.”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vol. 24, no.3 (September 2013): 293-321.

한기채. “예수사건의 윤리학.” *신학과 선교* 28 (June 2003): 299-326.

[학위 논문]

김희선. “배우자 사별 상실에 대한 심리적 변화와 기독교상담 방안.” DMin project,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7.

문현미. “심리적 수용 촉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수용-전념 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PhD diss.,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6.

박재표. “로뎀나무 전인 치유 학교를 통한 사별 가족 돌봄.” DMin project, 장로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2.

이성혁. “돌봄사역을 통한 갈등회복과 신뢰공동체 만들기.” DMin project, 장로회신학대학원, 2008.

하용수. “주의 만찬의 재발견: '환대'로 본 예수의 식탁교제.” DMin project,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8.

[웹사이트]

손의성. “성공적인 노년목회와 사별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코람데오닷컴. Accessed September 4, 2018.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7982.

신성식. “사별가구 41%가 최저생계비 못 벌어…기초연금 논의를.” *중앙일보*, February 3, 2017. https://news.joins.com/article /21205397.

2차 자료(Secondary Resource)

[한서]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V: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번역서]

Russell, Letty M. *Just Hospitality-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공정한 환대-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Translated by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저널]

김성호.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다문화사회복지의 과제: 평등을 지향하는 공정한 환대의 실천." *기독교사회윤리* vol. 36 (December 2016): 37-75.

손성수. “특집: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기독교대학에서의 환대의 적용 연구.” *대학과 선교*, vol. 11 (December 2006): 95-116.

이윤주, 조계화 and 이현진. “사별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분석.” *상담학 연구* vol. 8, no. 3 (September 2007): 839-57.

정경호. “환대의 밥상, 환대의 신학 삶.” *신학과 목회* vol. 34 (November 2010): 177-209.

정보라. “평신도 중심의 공동체적-상황적 목회돌봄에 기초한 실천신학 방법론 연구.” *오순절 신학 논단* vol. 8 (December 2010): 67-107.

홍구화. “상실로 인한 슬픔에 대한 효과적 위로 사역.”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67, no.1 (January 2010): 319-41.

[학위 논문]

황선희. "사별에 따른 지속된 비애 증상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MA thesis,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